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학위논문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대한 연구
- 총련계 커뮤니티의 재생산과 젠더 역할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협력학전공

川瀬 愛舞璃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대한 연구

- 총련계 커뮤니티의 재생산과 젠더 역할 -

지도교수 한영혜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협력학 전공

가와세 에마리

가와세 에마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위원장 권숙인 (인)

부위원장 조경희 (인)

위원 한영혜 (인)

©2019

Emari Kawase

All Rights Reserved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활동과 조직의 분석을 통하여 어머니회가 조선학교에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며 어머니회가 총련계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젠더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모든 조선학교에는 어머니회와 교육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아버지회를 가지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학부모 조직이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조선학교 특유의 구조이지만, 어머니회는 다른 학부모 조직에 비하여 다양한 활동을 맡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회의 활동은 (1)국가나 지자체 등에 대한 요청 활동, (2)조선학교 운영을 위한 자금 모으기, (3)계발 활동, (4)공동 작업, (5)학교 행사 보조, (6)학교 행사의 주최라는 여섯 개로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어머니회가 수행하는 역할이 네 가지 있다. 첫째로 어머니회는 어머니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성동맹의 활동 폭을 학교까지 넓혀서 여성동맹에 의한 자녀교육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둘째로 어머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재구축함으로써 아이들의 진로 선택의 방향을 잡는다. 셋째로, 어머니회를 네트워킹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어머니들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과 정보교환을 한다. 넷째로, 어머니회는 민족교육의 유지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어머니회만이 맡고 있는 일이며, 학교 안의 학부모 조직 속에서도 교육회나 아버지회와 어머니회의 사이에는 분업체제 즉 젠

더 역할이 존재한다. 이 배경에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어진 총련의 가부장적 구조 안에서 어머니들에게 학교지원활동에 진력하는 것이 요구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머니회는 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일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그림자 노동’ (shadow work)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 어머니회에는 조선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이나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자율적인 활동의 측면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존재 이유를 총련계 커뮤니티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어머니회 활동을 비가시화된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머니들의 일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회는 학교라는 범주를 넘어서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를 떠받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 사회가 에스닉 커뮤니티로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어머니회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활동은 공동체 존속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워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요어: 어머니회, 조선학교, 여성동맹, 총련계 커뮤니티, 젠더 역할,

커뮤니티 워크

학번: 2016-29542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주제와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10
1) 조선학교를 다룬 연구	10
2)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을 다룬 연구	14
3) 본 연구의 의의	20
3. 연구 방법	22
1) 문헌 조사	22
2) 인터뷰	24
4. 이론적 틀	31
1) 여성 주체 조직의 자율성	31
2) 여성들의 노동	32
3) 총련의 젠더 구조	37
II.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개요	40
1. 조선학교의 역사	40
2. 어머니회의 역사	44
1) 어머니회의 시작	44
2) 어머니회의 전개	47

3. 어머니회 조직.....	51
1) 어머니회의 위치	51
2) 어머니회 가입 및 탈퇴	52
3) 어머니회의 운영	54
 Ⅲ. 어머니회의 활동	 56
1. 국가와 지자체를 향한 요청 활동	56
2. 조선학교 운영을 위한 자금 모으기	62
1) 판매 활동	64
2) 기금 운동	67
3. 계발 활동.....	69
4. 공동 작업.....	72
5. 학교 행사 보조.....	75
6. 학교 행사 주최.....	76
 Ⅳ. 어머니회의 역할	 79
1. 여성동맹의 활동 범위 확대.....	79
1) 여성동맹이 어머니회에 미치는 조직적 영향력	79
2) 여성동맹으로부터 어머니회의 자율성	83
3) 여성동맹이 어머니회에 관여하는 의도	84
2. 어머니들의 정체성 유지와 재구축.....	86
1) 어머니들 자신의 의식 통일	86
2) 자녀들의 진로 결정	88
3. 네트워킹 및 정보 교환.....	91

1) 네트워크	91
2) 정보 교환	93
4. 민족 교육의 유지	94
 V. 어머니회에서 보이는 젠더 구조	98
1. 학부모 조직의 젠더 역할	98
1) 교육회	98
2) 아버지회	100
3) 어머니회의 그림자 노동	102
2. 가부장적 구조	105
1) 총련과 조선학교의 남녀별 조직	105
2) 학부모 조직 간의 가부장적 구조	106
3) 1960년대 이후 총련 가부장적 구조의 불변성	109
3. 기존의 젠더 규범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111
1) 조국 지향의 약화	111
2) 어머니회의 자율적인 측면	113
4. 커뮤니티 워크	115
5. 어머니들의 갈등	117
1) 세대 간의 갈등	117
2) 어머니들의 의식 차이	120
 VI. 결 론	122

참고문헌	130
연표	143
論文抄録	151

표 목 차

<표 1> 조선학교 학부모 조직의 개요	6
<표 2> 서아귀(2012)에 의한 운동 조직의 분석 틀	19
<표 3>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 (1)	26
<표 4>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 (2)	29
<표 5> 각 학교 어머니회의 설립 시기	48

약 어

- 총련 (総連)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
- 조련 (朝連) : 재일조선인연맹 (在日朝鮮人連盟)
- 여성동맹 (女性同盟) :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在日本朝鮮民主女性同盟)
- 부녀동맹 (婦女同盟) : 재일본조선부녀동맹 (在日本朝鮮婦女同盟)
- 청상회 (靑商会) :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在日本朝鮮靑年商工会)

일러두기

‘재일조선인’

그 동안 ‘재일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동포’, ‘자이니치’, ‘재일한국인’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한국에서는 ‘재일동포’라는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는 조선학교가 정당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 중에서도 북쪽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북한)이며¹, 조선학교는 ‘조선’을 ‘조국’으로 생각한다. 조선학교의 ‘조국 방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및 부모들의 국적과 정체성 등이 다양하며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 역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에서는 조선학교가 정식으로 ‘조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¹ 山本かほり, 「朝鮮学校で学ぶということ」, 『移民政策研究』6(2014), p. 86.

I. 서론

1. 연구 주제와 목적

2018년에 일본 조선학교의 ‘어머니회’가 한국에서 ‘제3차 한경희통일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인상 깊은 일이었다. 2018년 3월 11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경희통일평화상을 운영하는 성공회대학교는 어머니회의 수상 이유에 대하여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일본에서 민족 교육의 중요성, 정당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그동안 이들이 겪은 차별·고통을 위로하고 노력을 격려하고자 수상자로 선정했다”라고 설명한다¹. 또한 이번 수상에 관련하여 경향신문과 한국대학신문은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에서 이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². 이러한 기사에서는 어머니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공적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약간 추상적인 부분도 있으나, 이번 수상을 통하여 어머니회가 한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볼 수 있다.

¹ 『한겨레』, 2018년 3월 11일에서 인용.

²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제3차 한경희통일평화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경향신문과 한국대학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하였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민족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일본 전역에 약 60여 개 교가 운영되지만 대부분 ‘북한 학교’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일본에서 겪는 차별이나 탄압 등에 맞서 학교 사랑 운동, 민족 교육의 중요성 알리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경향신문』, 2018년 4월 6일.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일본에서 차별과 탄압에 맞서 민족교육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현재까지 조선학교를 유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대학신문 Daily UNN』, 2018년 3월 10일.

또한 2013년 4월에는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사회권규약 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했다³. 여러 학교의 어머니회 회장들로 구성된 단체가 유엔의 심의 위원들 앞에서 조선고교 무상화 부적용 문제를 호소한 것이다.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로 구성된 단체가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세계 유수의 국제 기관을 방문하여 그 위원들과 직접 교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어머니회가 조선학교 대표로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유엔사회권규약심의위원회에 앞서 ‘우리 꿈 우리 마음’이라는 운동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군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가 여성동맹⁴ 군마현 본부와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로, 전국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종이학을 접어 보내 달라고 의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최종적으로 약 38,000마리의 종이학이 모인 데다가 550만엔을 넘는 모금이 이루어졌다. 어머니들이 제네바에 가는 당일에는 4만 마리에 가까운 종이학이 어머니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간 것이다⁵. 유엔에서는 심사 시간 이외에도 어머니들이 공부한지 얼마 안 된 여러 외국어를 사용하여 로비 활동을 하거나 저고리를

³ ウリハッキョ (朝鮮学校) を記録する会, 『朝鮮学校のある風景』 19, (東京: 一粒出版, 2013), pp. 14-22. 『朝鮮新報』, 2013년 4월 23일.

⁴ 여성동맹은 1947년 10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련 주도의 재일 조선인 운동에서 존재감을 보여왔다. 여성동맹은 중앙 조직 밑에 도도부현 단위의 지방 조직, 지부, 더욱 말단에는 분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결혼한 재일 여성들의 조직이다. 수많은 재일조선인 문제 중에서도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온 단체이다.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在日コリアン辞典編集委員会, 『在日コリアン辞典』 (東京: 明石書店, 2010), pp. 200-201. 또한 이 논문에서는 ‘여성동맹’ 이라고 표기를 하지만, 원래 이 조직이 사용하는 명칭은 ‘녀성동맹’ 이다.

⁵ 『朝鮮新報』, 2013년 4월 23일.

입고 행사장 주변에서 퍼레이드나 농성을 하면서 조선학교의 대표로 다른 나라 위원들과 관계자에게 조선학교의 현재를 어필했다⁶.

위와 같이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조선학교 내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회는 조선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들이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의 공식 단체이며 모든 조선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모임을 PTA (Parent-Teacher Association) 또는 ‘보호자회’라고 부르며 이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참여하는 남녀 혼성 조직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부형회’나 ‘부모회’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것도 지적할 만하다⁷. 또한 같은 ‘민족 학교’ 이면서도 민단계 학교인 한국학교에는 어머니회라고 불리는 조직이 없으며 PTA가 설치되어 있다⁸. 일본 학교도 한국학교에도 어머니들만의 조직은 없다. 즉, 조선학교의 어머니회는 일본에 한해서는 조선학교에만 존재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⁶ 어머니들이 런치 타임을 이용하여 심의 회장 주변을 퍼레이트하거나 중국어나 불어로 “저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조선학교 처우에 대하여 고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선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이학을 만들어서 이름을 새겨 주었습니다.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종이학과 문서를 관계자들에게 주었다. 『朝鮮学校のある風景』 19, 2013, pp. 14-22.

⁷ 公益社団法人日本PTA全国協議会の 홈페이지에 따르면, PTA는 전후 점령구의 정책 중 하나로 시작하였다. 그 이후 문부성 안에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모임 위원회’(父母と先生の会委員会)가 만들어지면서 PTA 보급 활동이 활발해졌다. 1948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 70%에 PTA가 설치되어 있었다.

일본 학교의 PTA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하 자료를 참조할 것. 公益社団法人日本PTA全国協議会, 『今すぐ役立つ PTA応援マニュアル』(東京: ジアース教育新社, 2015). 岩竹美加子, 『PTAという国家装置』(東京: 青弓社, 2017).

⁸ 코리아学園 및 東京韓国学校 홈페이지에는 PTA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나, 별도로 어머니회에 대한 정보는 없다.

단, 조선학교의 학부모 모임은 어머니회만이 아니다. ‘교육회’와 ‘아버지회’라는 조직도 따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학부모 및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공식 조직이다. 교육회도 어머니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선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교육회의 역사는 총련이 설립된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동맹 70주년 기념 잡지에는 1951년 5월 26일에 “재일조선인 학교 학부모회(PTA) 전국 학부모 연합회 결성”, 1955년 7월 2일에는 “재일조선인 학교 PTA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재일본조선인교육회를 결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⁹. 즉 교육회의 전신은 PTA였으며, 이는 이름을 바뀌어서 현재도 교육회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회는 총련 산하 단체이며,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합법적 지위를 옹호하고 충실한 교육 시설 및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 운영의 자립적 토대를 만드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교에 중앙교육회가 있으며, 각 도도부현 및 학교 단위로 교육회가 설치되어 있다¹⁰. 아래의 내용은 총련 홈페이지에 조선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기재된 설명의 일부이다.

“조선학교의 운영은 총련의 지도 하에 있어서 교육회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교육회는 중앙, 지방, 학교 단위로 전임 활동가들과 동포

⁹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은혜로운 사랑속에 수놓아온 70년 1947~2017』 (2017), pp86-87.

¹⁰ 卞喜載・全哲男, 『いま朝鮮学校で なぜ民族教育か』 (東京: 朝鮮青年社, 1988), p. 86.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교육회는 동포 학부모의 교육적 열정을 불러 일으키며 밤낮없는 노력을 기울여 학교 운영에 요구되는 교육 자금을 확보하고, 학교 시설 및 설비 기자재를 개선하고 있다.”¹¹

단, 이 교육회에 대한 기술은 2012년 3월 이후에 삭제되어 현재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회는 조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아버지들로 조직되는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모든 학교가 갖는 조직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도 활동을 게재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¹². 아버지회는 어머니회와 교육회에 비하여 새로운 단체이다. 예를 들어 현재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아버지회가 설립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사이타마 학교는 5년 전까지는 가와구치 단독 유치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 유치원 아버지회가 있었다. 그 이후 오미야 학교로

¹¹ 東京都. 『朝鮮学校調査報告書』(2013), p.18에서 인용.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회는 각 학교에 ‘교육회실’이 있으며, 고급부 3학년 ‘사회’ 교과서 및 총련의 홈페이지에도 교육회가 총련의 산하 단체이라는 점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한다.

¹² 아버지회를 주제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으나, 조선학교를 다룬 연구 중에 아버지회에 대한 언급이 있다. 우선 “어머니회 아버지회 등의 봉사활동도 많”다고 한다. 板垣竜太, 「資料：朝鮮学校への嫌がらせ裁判に対する意見書」, 『評論・社会科学』105(2013). p173.

또한 “2000년대에 들어 후쿠오카 등의 지역에서 아버지들의 그룹인 아버지회를 설치하는 초중급학교도 나타났는데, 아버지회는 일본 학교의 PTA에 해당되는 교육회를 중심으로 조선학교와 관련되어 왔다”라는 기술이 있다. 洪ジョンウン, 『『女性同盟』とオモニ・アイデンティティ：1960年代在日朝鮮人の民族運動における女性たちの遂行性を中心に』, 『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14(2015), p.6

유치원이 이동하고 나서는 유치원이 학교와 함께 여러 활동을 하게 되어 유치원 아버지회도 학교 어머니회 안에 포함되었다.

아버지회 활동은 어머니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버지회가 형식적으로는 아버지만의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또한 아버지회는 특정 활동을 일시적으로 수행한 후 중간에 자연스럽게 해산될 수도 있으며, 어머니회에 비해 활동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회는 그 역사와 활동의 실태에서 보았을 때 어머니회와 같은 성격의 조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존재감도 어머니회보다 약하다.

〈표 1〉 조선학교 학부모 조직의 개요

	구성원	설치 상황	계속성	총련과의 관계
교육회	조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어머니 및 아버지), 교직원, 찬동자 등	모든 학교	있음 *전신: 재일조선인학교 학부모회 (PTA)	총련 산하 조직
어머니회	조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	모든 학교	있음	총련 산하 조직인 여성 동맹의 산하

				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아버지회	조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아버지들	일부 학교	없음 *자발적이고 일시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해산된 사례	총련 산하 조직이 아님

즉, 어머니회는 교육회나 아버지회와는 성격이 다른 조직이다. 그를 구별하는 특징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로, 어머니회는 조선학교 학부모 조직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구성원도 활동 실태도 어머니들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와 달리 교육회는 남녀 혼합 조직이며, 아버지회는 어머니회와 함께 활동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아버지들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은 적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 개의 학부모 조직 중에서 어머니회의 존재감은 교육회와 아버지회보다 더 크다.

여기에서 지적할 만한 점은 교육회는 어머니회보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성이 어머니회보다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민족 교육의 유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교 무상화를 위한 운동을 포함한 학교 생존을 목적으로 한 활동의 중심에 있으며 조선학교 내외에 이

름을 알려져 있는 것은 항상 어머니회인 듯 하다.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수상한 것과 유엔 심의위원회에 등장한 것도 ‘조선학교’나 ‘조선학교 학부모’로서의 수상과 성명이 아니라 ‘어머니회’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있다. 어머니회가 이 정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머니회는 어떤 조직이며, 조선학교 또한 총련계 커뮤니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 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먼저 조선학교에 대해 설명하자면, 조선학교란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의 하나이며, 재일조선인의 민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의 공교육 기회는 조선학교, 한국학교, 일본의 공립 학교라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재일조선인 어린이의 약 90%가 일본의 공립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약 10%가 조선학교 또는 한국학교라는 민족학교에 다니고 있다¹³. 민족 학교 중 조선학교는 북한을 지지해 온 재일조선인들의 민족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을 모체로 하는 민족학교의 총칭이며, 2019년 7월 시점에서 전국에 66개 존재한다. 조선학교는 유치부부터 대학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유아 교육부터 고등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조선학교의 기원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거쳐 재일조선인 자신이 아이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기 위한 ‘국어 강습소’를 열게 된 것이었

¹³ 金泰泳, 「在日コリアン教育と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 雑誌『三千里』, 『青丘』にみられる在日コリアン教育言説」, 『韓国民俗文化』 27(2006), p233.

다¹⁴. 이것은 재일조선인 1세들이 차별과 억압 속에서 민족 의식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 가는 행위였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에게 민족 교육의 출발점은 재외동포를 위해 조국의 역사, 언어, 전통을 교육하고 유지하는 ‘민족성 보지 기능’ 만이 아니라 역사적 경위에 의해 빼앗겼던 민족성을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되찾는 새로운 ‘민족성 창출 기능’도 포함해야 했다¹⁵.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과 조선학교는 뉴커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일본의 다른 민족학교와는 다른 맥락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어머니회’를 광의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학교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재일조선인 어머니들에 의해 조직되는 ‘어머니(의)회’라는 단체가 여러 개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주로 재일조선인들의 집주 지역에서 일본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지는 재일조선인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어머니회’는 조선학교 안에 조직된 단체라는 협의의 정의를 이용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지역의 어머니회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¹⁴ 1945년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조선인은 약 200만 명이었고 귀국을 예정하고 있었다. 먼저 ‘국어강습소’가 설치되었는데, 1945년 10월에 조련이 조직된 이후 ‘조선인학교’라는 명칭으로 학교가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다. 金兌恩, 「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位置に関する社会学的考察：大阪と京都における『民族学級』の事例から」, 『京都社会学年報』14(2006), p25.

¹⁵ 黃止琬, 「日本の公教育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の民族学級の意義と可能性—多文化教育という視点からみた在日コリアンの民族教育—」, 『日本近代學研究』31(2011), pp. 173-174.

조선학교에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속할 수 있는 조직인 교육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만의 조직인 어머니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의 조직이 PTA와 학부모회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회와 어머니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이원적인 구조는 매우 특수하다. 또한 어머니회나 아버지회와 같이 성별에 따라 학부모 조직이 구분되어 있다는 구조야말로 조선학교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회의 위치를 총련 산하 여성동맹, 학교의 교육회와 아버지회라는 관련 조직과의 관계성에서 밝히는 것과 동시에 어머니회의 활동과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머니회의 존재 이유를 고찰하는 가운데 조선학교 어머니회 활동의 다양성과 담당하는 역할이 가지는 배경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의 활동 기반인 조선학교 커뮤니티에서 다의적인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과 조선학교라는 틀을 넘어서 총련계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에서 어머니회가 담당하는 역할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1) 조선학교를 다룬 연구

지금까지 조선학교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그 주제의 대부분은 해방 직후의 총련의 결성과 ‘국어 강습소’ 당시부터 ‘조선학교’가 건설 될 때까지의 역사, 학교의 교과 과정,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일본 사회 속의 갈등, 보조금의 삭감이나 고교 무상화 재관

등 일본 사회에서 경험하는 억압 및 차별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한편, 조선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특히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송기찬(宋基燦, 2012)은 조선학교의 실제 모습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조선학교가 아직도 ‘이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정의하며, 조선학교와 민족 교육의 현장에서 37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청취 조사 및 학교 관련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인 연구자의 시점에서 조선학교의 현실을 부각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억압과 지배를 받아 왔던 재일조선인들의 정체성 회복의 수단으로서의 ‘저항’과 조선학교가 가지는 의의, 전후 재일조선인 운동사, 학생들의 조선말 사용과 민족 정체성 등이었다. 그러나 학부모에 대한 언급으로 일본인 어머니가 조선학교에서 겪고 있는 갈등에 관한 설명이 있으나¹⁶, 어머니회라는 조직과 조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에 대한 분석은 거의 볼 수 없다.

나카지마(中島, 2011)는 조선학교 학부모에 관한 적은 연구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카지마(2011)는 조선학교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 이유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학부모가 조선학교를 선택한 이

¹⁶ 조선학교 학부모를 보면 부모 중 한 명이 일본인인 경우도 많다. 단 그 중에는 원래 국적이 ‘일본’이었으나 나중에 어머니가 총련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남편과 결혼할 때 일본 국적을 버려서 무국적 즉 국적이 ‘조선’인 ‘일본인 어머니’도 있다. 宋基燦,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学校—在日民族教育と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ックス—』(東京: 岩波書店, 2012), pp. 193-198.

유의 대부분은 ‘당연한 선택’이며, 그것은 조선학교야 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한편, “조국의 재외 공민이라서”, “국민 교육을 추구 하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이유는 나오지 않는다¹⁷.

게다가, 나카지마(2013)는 ‘조선학교 커뮤니티’를 더욱 분석하여 첫째로 재생산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학교 학부모의 대부분이 조선학교 졸업생이며, “조선 학교의 자동성이란 졸업생의 부모로부터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재생산” 되는 것이라고 한다. 둘째,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에 비하여 가족, 친족, 졸업생, 기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연결 지점’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⁸. 즉, 나카지마(2011)와 나카지마(2013)는 조선학교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학부모를 필수적인 시점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결 같이 보호자라는 큰 틀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어머니들의 인물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여기에는 젠더 관점이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조선학교에서 오랫동안 현지 조사를 실시해온 야마모토(山本, 2012)는 A조선중고급 학교에서 참여 관찰을 통하여 ‘민족’의 형성과정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는데 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

¹⁷ 中島智子, 「朝鮮学校保護者の学校選択理由 —『安心できる居場所』『当たり前』をもとめて—」, 『プール学院大学研究紀要』 51(2011), pp. 199-200.

¹⁸ 中島智子, 「朝鮮学校の二つの仕組みと日本社会: <自己完結統一システム>と<朝鮮学校コミュニティ>に着目して」, 『教育と社会』 2(2013), pp. 80-83.

다. 그것은 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 활동을 하거나 일본의 학교의 PTA와 교류를 하거나 활발하게 활동에 힘을 쓰는 모습이다¹⁹. 여기에서는 어머니회를 학교를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자로 논하고 있으나, 특히 어머니회에 초점을 맞춘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족 교육을 다룬 문헌 속에서 조선학교 어머니회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우리 학교를 엮는 모임’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会) 이 2001년에 출판한 책이다. 여기에서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들’로서 특히 어머니회의 시작에 대하여 언급한 후, 1955년 이후와 1970년대 이후의 각각의 활동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²⁰.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니시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를 하나의 사례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학교를 엮는 모임’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조선학교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헌의 내용의 대부분은 ‘소개’라는 범주를 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머니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활동을 열거하거나 요직을 맡고 있던 어머니들의 경력만이 언급되어 있으며, 보다 학문적인 고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¹⁹ 조선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불만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 학교의 학부모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조선학교를 지키고 싶다, 뒷받침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며 이는 어머니회에 활동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한다. 山本かほり, 「朝鮮学校における『民族』の形成—A朝鮮中高級学校での参与観察から—」, 『愛知県立大学教育福祉学部論集』 61(2012), pp. 156-158.

²⁰ 또한 교육회나 어머니회 이외의 학부모 조직으로 아버지회가 아니라 ‘보호자회’가 있는 학교도 있었다. 이는 니시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에서 1999년에 만들어진 조직이며,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같이 활동을 하였다. 보조금 획득 운동에 힘을 쓰면서도 학교 보수 사업이나 컴퓨터 환경 정비 등 어머니회가 충분히 하지 못 했던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 아버지회가 생긴 후에는 ‘보호자회’를 ‘보호자연락회’로 변경하여 어머니회와 아버지회의 대표들이 운영하는 조직이 되었다.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会, 『朝鮮学校ってどんなところ?』(東京: 社会評論社, 2001), pp. 148-155.

2)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을 다룬 연구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행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히 재일조선인 여성 자신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대부분은 총련 산하 단체인 여성동맹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며, 여성 운동의 역사와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동맹에 속하는 어머니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그리고 조선학교 어머니회와 여성동맹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도 약간 볼 수 있다.

여성동맹과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홍정은(洪ジョンウン, 2015)을 들 수 있다. 홍정은은 ‘여성동맹과 어머니 아이덴티티’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젠더화된 어머니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정의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사 방법으로 오사카부 여성동맹 1세 및 2세 여성 활동가 16명으로부터 들은 구술사를 이용했는데,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대한 언급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²¹ 부녀부와 그 후신인 여성동맹의 구성원들의 가치 기반을 밝혔다. 특히 1960년대 재일조선인의 민족 운동에서 여성들의 수행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발족이 여성동맹의 구성원 및 사상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²¹ 재일본조선인연맹은 1945년 10월 15일에 결성되었다. 당시 남조선 단독 선거를 비난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을 지시했으며 1948년에는 김일성 주석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1949년 9월 8일에 GHQ의 점령 하에 있었던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해산되었다. 재일조선인들은 이 조직 명칭을 ‘재일본조선인연맹’이라고 표기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칭을 ‘조련’이라고 한다. 이하 조련이라고 기재한다.

있었으며, 여성동맹 일군들이 어머니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어머니 역할이란 ‘아이들을 혁명가로 키운다’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데올로기로 구축된 것이라고 한다²². 홍정은(2015)의 연구는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에 조직적인 관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로 홍정은(2015)의 연구의 초점은 조선학교와 민족 교육이 아니라 여성동맹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의의 대부분은 여성동맹에 관한 것이다. 즉, 어머니회와 여성동맹 양쪽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어머니회가 조선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에 관한 고찰은 매우 적다. 두 번째로, 홍정은의 연구는 1960년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이다. 1960년대라고 하면, 그 직전인 1959년에 재일조선인귀환협정이 체결되어 동년 12월부터 귀국운동이 시작된 시기였다²³. 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지위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출입국관리특별법 공포에 의하여 협정영주가 인정되었는데, 특히 협정영주권을 둘러싸고 재일조선인 사회 속에서도 남북 간 갈등이 보인 시기였다. 이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양대 조직인 민단과 총련에 의한 체제 경쟁이었으며, 본국과의 관계가 지금과는 크게 다른 상

²² 洪ジョンウン, 2015, pp. 3-14.

²³ 江原(2003)의 안표를 참조. 귀국운동은 1959년 12월에 시작하였는데, 이후 25년 간 북한으로 약 93,000명이 귀국하였다. 江原護, 『民族学校問題を考える』(東京: 星雲社, 2003), p. 202.

황이었다²⁴. 그러므로 현재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의 모습이 조국인 북한 유래의 ‘혁명가가 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²⁵라는 전통적인 여성상인가 생각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어머니회의 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도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 외에도 여성동맹이나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을 다룬 연구는 여러 개 있으나, 이들은 ‘재일조선인 여성’이라는 틀에서 논의하고 있더라도 ‘어머니’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어머니 아이덴티티’가 나와 있어도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볼 수 없다. 어머니회에 대한 조사는 대체로 적다.

예를 들어, 여성동맹에 관한 연구로 가장 선구적인 것은 김영·김부자(金榮·金富子, 1994)이다. 민단의 부인회와 총련의 여성동맹을 비롯한 재일조선인 여성들에 의한 민족 조직이 창설 될 때까지의 역사와 그 활동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 직후 민족 운동의 행위자로서 재일조선인 여성을 자리매김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김영(2009) 역시 여성동맹 강령에 대한 언급과 함께 여성동맹 중앙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재일조선인 1세의 활동가에 대한 청취 조사를 실시하여 재일조선인 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김영·김부자(1994)

²⁴ 협정영주권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일괄적으로 ‘한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주자들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한영혜, 「협정영주권과 재일한인 정체성의 재구성 — ‘조선’과 ‘한국’ ;경계짓기와 경계넘기」, 『사회와 역사』 113(2017), pp. 175-185.

²⁵ 洪ジョンウン, 2015, p. 14에서 인용.

와 김영(2009)에 의하면, 에스니시티나 젠더 등의 관점에서 복합적인 마이너리티라는 입장에 놓여 있던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조직은 결성 당시에는 젠더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²⁶. 그러나 여기에는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후속 운동의 역할과 그녀들의 인물상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대상은 ‘재일조선인 여성’이었으며 ‘어머니’가 아니다. 물론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소냐 량(Sonia Ryang, 2005)은 총련계 여성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재일조선인 1세 여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조직 내 담론에 의한 권력 구조를 밝힌다는 과제에 도전하고 있으며, 여성동맹의 ‘정치적 언어’, 총련 여성들의 도덕적 목표가 된 ‘집단적 모성’과 ‘애국적 모성’, 이들에 의해 길러지는 정체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소냐 량의 연구는 총련계 여성들의 말에 주목하고 있으며, “총련 조직 활동의 영역에서 여성의 주체성은 남성 지배에 의존하는 형태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⁷. 즉, 소냐 량(2005)의 연구에서도 논의의 중심은 총련계 여

²⁶ 金栄, 「解放直後の女性同盟が目指した『女性解放』」, 『戦争と性』28 (2009), pp. 112-117 및 金栄・金富子, 『第二次世界大戦(解放)直後の在日朝鮮人女性運動』(東京:東京女性財団, 1994)를 참조할 것.

²⁷ 총련이 추진한 ‘애국적 모성’은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었으나, 이 개념이 반영하는 것이 어떤 여성성이며 어떤 주변적 장소에서 어떤 과정을 가지고 나타낸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 ソニア・リャン,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 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東京:明石書店, 2005), p. 119.

성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여성동맹을 의미하는데 “학교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가 교육을 받는 곳이며, 그 점에서 집단적 가정”이었으며 여성동맹 여성들은 애국적인 어머니로서 학교 운영에 협력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⁸. 단, 이는 주로 여성동맹에 대한 설명이며 어머니회에 대한 많은 언급은 없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1960~1970년대에 행해진 ‘어머니 강반석을 따라하고 배우자’ (「母なる康盤石²⁹に倣い学ぼう」)라는 캠페인에 많이 보이긴 있지만, 이 운동을 비롯한 분석의 착안점은 주로 그들의 언어였다.

서아귀(徐阿貴, 2012)는 재일조선인 여성의 주체 형성에 주목하여 오사카의 야간 중학교 독립 운동을 다루었다. 서아귀는 폴리뉴(Molyneux)가 제창한 여성 운동의 자율성과 유바루=데이비스 (Yuval-Davis) 및 안시아스 (Anthias)에 의한 네이션과 젠더의 상관 이론을 결합시켜서 재일조선인 여성에 의한 운동을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분석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여성동맹과 부인회는 ‘현모양처적인 민족 운동’ 유형에 해당된다. 이는 “조직 구조적으로 운동체 밖에서 강하게 구속 받고, 또한 ‘어머니’와 ‘아내’라는 가정 젠더 역할로 인해 강하게 규정된 운동체”를 가리킨다.

²⁸ ソニア・リャン, 2015, p. 113.

²⁹ 강반석(康盤石, 1892년 4월 21일 ~ 1932년 7월 31일)은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며, 1960~1970년대에 총련계 커뮤니티에서 애국적 모성을 체현하는 모델로 생각되었다. ソニア・リャン, 2015, p. 113.

<표 2> 서아귀(2012)에 의한 운동 조직의 분석 틀³⁰

<div> <div>민족조직에서의 자율성</div> <div>젠더에서의 자율성</div> </div>	낮음	높음
	현모양처적 민족 운동	모성적 시민 운동
낮음		
높음	남녀 평등적 민족 운동	탈냉전, 운동의 개별화

첫째, 여성동맹은 ‘집주지의 풀뿌리 상부상조’를 기원으로 하면서도 결국은 남성 중심적인 총련를 뒷받침하는 ‘내조의 공’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운동 주체의 모호성이 지적된다. 둘째, 여성동맹에서는 어머니 역할이 조직 활동의 기반이 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가사나 육아, 간호을 비롯한 재생산 역할”을 맡아 왔다고 한다³¹. 서아귀의 연구는 여성동맹의 여성들이 ‘어머니’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연구와 차이를 이루는 것이지만, 여성동맹의 어머니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젠더 질서 하에 있는 소극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다. 또한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연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³⁰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東京: 御茶の水書房, 2012), p. 65.

³¹ 徐阿貴, 2012, pp. 66-73.

3) 본 연구의 의의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선학교 어머니회를 주제로 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조선학교를 주제로 한 조사에서 학부모에 초점을 맞춘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회에 대한 언급은 약간 볼 수 있으나, 이들은 어머니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즉, 주된 목적은 민족 교육과 조선학교의 역사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정체성 고찰이었다. 또한 총련 산하 조직인 여성동맹을 다룬 연구가 다소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홍정은(2015)은 여성동맹과 어머니회의 연결에 대하여 언급했으나, 논의의 중심은 역시 여성동맹이며, ‘학교 안의 어머니회’라는 관점에서 본 논의가 아니었다. 또한 여성동맹이나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연구는 ‘재일 조선인 여성’으로서의 논의가 많은 반면,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하물며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관련된 사안들은 여전히 논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조선학교 어머니회를 독자적인 주제에 삼아 그 조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회는 어떤 역사를 가진 조직인지, 어머니회와 총련 및 학교의 다른 학부모 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머니회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준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조선학교에 어머니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어머니회의 일관성과 가변성 모두를 다룬다. 먼저 어머니회의 설립 초기부터 일관하게 요구되어 왔던 젠더 역할과 조선학교 및 총련 안의 어머니회의 위치에 대하여 언급한다. 또한 어머니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상위 조직이나 남성들에게 종속되는 ‘억압의 대상으로서의 어머니’로 논의되거나³² 특히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하여 ‘애국적인 모성을 가진 어머니’³³ 내지 ‘혁명가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³⁴가 될 것이 기대되기도 했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현재 어머니회 조직의 차원에도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동시에 오늘날의 어머니회 조직 구조와 활동은 설립 초기에 비하여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선행 연구와 차이를 가진다. 홍정은(2015)은 1960년대의 여성동맹과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행보에 주목한다. 특히 학교의 어머니회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포함한 조사를 통하여 1960년대 총련과 본국과의 관계와는 또 다른 맥락에 놓여 있는 현재 조선학교 어머니를 분석하는 것은

³² 재일한국조선인 여성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조선인 어머니’라는 유형의 독특한 이미지가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 모델로는 ‘언짢은 아버지’에 대한 ‘견디는 어머니’,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학교 운영에 열심히 협력하는 ‘어머니회의 구성원’ 등을 들 수 있다. 橋本みゆき, 「娘の結婚～既婚の娘を持つ在日韓国・朝鮮人女性の語りから～」, 『立教大学ジェンダーフォーラム年報』4 (2001), pp. 5-6.

³³ ソニア・リャン, 2005, pp. 111-115.

³⁴ 洪ジョンウン, 2015, p. 14.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 여성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통찰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착안점은 재일조선인 여성의 조직 활동이 갖는 의미를 보다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기존의 연구에서는 재일조선인 여성이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남성을 위한 보조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기존의 젠더 규범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나아가 어머니회의 활동이 조선학교 내부는 물론 총련계 커뮤니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가시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어머니회의 성립과 역사,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 등을 여성동맹의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첫째,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기원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어머니회의 경위에 관해서는, 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가 2017년에 간행한 『은혜로운 사랑 속에 수놓아온 70년 1947 ~ 2017』을 참고로 했다. 이 기념지는 여성동맹의 설립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이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쓰여 있으며, 어머니회와 교육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약간 적혀 있다.

다음에 각 학교 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하여 재일조선인 관련 잡지나 신문을 참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자료는 세 가지 있다. 첫 번

책은 총련의 기관지 부문인 ‘조선신보사’ (朝鮮新報社)³⁵가 199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행해 온 월간지 『월간 이오』 (月刊イオ) 이다. 둘째, ‘우리 학교를 기록하는 모임’ (ウリハッキョを記録する会) 의 회원 잡지이며, 2010년에 창간된 『조선학교가 있는 풍경』 (朝鮮学校のある風景) 이다. 이 잡지에는 어머니회가 참여한 조선학교 행사의 모습이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회의 실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회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잡지로는 어머니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는 없었다.

세 번째는 민족교육편집위원회가 1990년대에 발행한 신문 자료 『민족교육』 (民族教育)이다. 각 연도의 일본의 지방 신문과 전국 신문을 포함한 신문 기사 및 조선신보의 일본어 버전 등에 게재된 민족교육에 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관여한 활동에 대한 기사도 여러 가지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어머니회의 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잡지에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각 학교의 어머니회가 주력한 활동을 알아보는 데 이러한 신문 자료가 유용하였다. 또한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JR 정기관 투쟁, 치마 저고리 사건, 국공립 대학교 입시 자격 문제 등에 대한 요청 행동이 신문 기사로 보도되었을 때, 조선학교 및 총련에서 이루어

³⁵ 조선신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선산보사는 총련의 출판보도기관이며,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 기관지인 『조선신보』, 잡지 『이어』, 잡지 『조국』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을 발행한다. 조선신보사에는 편집국과 경영국, 그리고 각종 인쇄업무를 맡는 영업부가 있다.

진 집회 개최 및 서명 모으기와 전달과 같은 장면에서 어머니회가 어떤 위치에 서있었으며,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주목하였다.

한편, 각 학교 어머니회가 발행하는 가정통신문이나 홍보지와 같은 문서는 충분히 얻을 수 없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따른 것이었다. 각 학교의 어머니회에서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배포되는 연락사항 등을 학교 관계자 이외가 입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우선 각 학교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또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어머니회의 홍보지의 대부분도 역시 학교 밖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행사 때에 사용된 포스터와 전단지 등이었으며, 어머니회의 평소 활동이 적혀 있거나 어머니들에 향한 메시지 등이 쓰여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학교 안에서 공유되는 연락사항이 적혀 있는 편지 등의 대부분은 연락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학생들이나 어머니들 및 교직원들의 이름도 쓰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밖의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였다. 즉, 최근의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조선학교 관계자가 아닌 한 이러한 홍보지를 입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2) 인터뷰

문헌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회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제로 어머니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현역의 어머니들과 여성동맹에서 오래 전부터 활약해 온 선생님에게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양적 (quantitative) 접근보다는 질

적 (qualitative) 접근 방법론을 중시 한 것이며, 각 사례의 특색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인터뷰는 2018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뷰 협력자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및 유치부 어머니회에 속해 있는 3세인 4명에 대해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본고에서는 가명으로 A 씨, B 씨, C 씨, D 씨라고 표기한다. 4 명의 연령대는 30대 후반 1명, 40대 초반 1명, 40대 후반 2명이었다. 국적은 1명이 조선 국적³⁶, 3명이 한국 국적이며 한국 국적인 3명은 한국에 여행을 간 경험이 있다. 또한 4명 모두 아이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이 중에는 본인 및 자녀의 국적을 변경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자녀 출생시 남편의 국적이 한국이었다거나, 가족의 유학이나 아이의 탄생을 계기로 조선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꿨다는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4명 중에는 어머니회 임원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B 씨는 인터뷰를 실시한 2018년도 당시에 어머니회 회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C 씨와 D 씨는 이전에 어머니회의 유치부 책임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또한 학력을 보면 모두가 조선학교 출신자이다. 조선유치원부터 조선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민족 교육을 받았던 어머니도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조선학교에 다닌 어머니도 있어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나라’ 나 ‘우리 학교’ 에 대한 마음은 대체로 매우 강하다. 특

³⁶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외교 관계가 없으며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선적’ 이란 외국인등록증에 ‘조선’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의 입장을 의식하면서 ‘조선 국적’ 이라고 표기한다.

히 B 씨와 C 씨 같은 경우에는 조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의 최근의 활동과 구성원들의 모습,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 현재 어머니회와 더 나아가서 학교 전체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인터뷰 일시】: 2018년 7월 31일 (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장소】: 롯데리아 오미야 시바카와점 (사이타마현 오미야시)

【방법】: 그룹 인터뷰

<표 3>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 (1)

	세대	연령	조선의 출신지 및 도일 경위	본인과 자녀의 국적	한국 방문 경험	학력
A 씨	3세	30대 후반	-조부모 : 경상도 출신. 공부를 위 해 도일 -외할아버지 : 충 청도 출신. 강 제 노동을 위해 어느 날 고향에	한국	있음	-취학 전 : 일본의 보육원 -초중고등학교 : 조 선학교 -졸업 후 : 해외 대 학교 -취업 : 일본 기업

			가족을 두고 도 일 -외할머니 : 일본 인			
B 씨	3세	40대 후반	조부모 및 외조 부모 : 당시 식민 지 조선에서 결 혼한 후, 징용 공으로 도일	본인: 조선, 자녀: 한국	없음	-유치원~대학교 : 조선학교 -취업 : 조선학교에 서 교사 경험 있 음. 인터뷰 시에는 일본 기업에서 일 함
C 씨	3세	40대 후반	1930년대 후반 에 할아버지가 경상도에서 도 일	한국 (2014년 이 후 변경)	있음	-초등학교 6학년까 지 : 일본 학교 -중학교~대학교 : 조선학교 -취업 : 조선학교에 서 교사 경험 있음
D 씨	3세	40대 초반	-조부모 : 경상남 도 출신. (할머니는 10대 중반에 할아버	한국 (D 씨와 남 편은 원래 조선 국적 이었으나,	있음	-유치원~고등학 교 : 조선학교 -취업 : 조선은행에 서 근무 경험 있음

			지와 일본에서 만나 결혼) -외조부모 : 경상북도 경주 출신 (할아버지는 전쟁 중 및 전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할머니와 만나 결혼)	D 씨의 가족이 언니의 한국 유학을 기회로 한국적으로 변경했음. 남편은 두 번째 아이의 출생을 계기로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		
--	--	--	---	---	--	--

다음으로 니가타 조선초중급학교에 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도 니가타 여성동맹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2세인 E 씨에게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령대는 60대 후반이며, 조선 국적이다. 딸은 남편의 집의 사정과 자신의 일로 인해 2년 전에 국적을 변경했으며 현재는 한국 국적이라고 하지만, 남편과 아들은 모두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방문 경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번씩 있을 뿐이다. 또한 E 씨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근처에 조선학교가 없었으며 일본 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학교 밖에서 ‘오후 야간

학교’³⁷에 다니면서 조선말을 배웠다고 한다. 그 이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는 민족 교육을 받고나서 니가타 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인터뷰에서는 학교와 여성동맹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어머니회와 여성동맹, 일본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E 씨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2018년도부터 니가타 조선초중급학교는 학생 부족으로 인하여 휴교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³⁸ 특히 니가타 학교의 어머니회 대하여 E 씨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기회였다.

【인터뷰 일시】: 2018년 8월 2일 (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오로라 외국어 교실 (니가타현 니가타시)

【방법】: 단독 인터뷰

<표 4>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 (2)

세대	연령	조선의 출신지 및 도일 경위	본인과 자녀 의 국적	한국 방문 경험	학력
----	----	--------------------------	----------------	----------------	----

³⁷ 학교가 아니라 사무소 같은 곳에서, 지식이 있는 재일조선인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일본학교에 다니는 재일조선인 아이들에게 밤중에 조선말을 가르쳤다고 한다.

³⁸ 『産経新聞』, 2018년 5월 2일.

E 씨	2세	60대 후반	강제 노동 시기 에 부모가 경상 남도에서 도일	본인 : 조선 아들 : 조선 딸 : 한국 (딸은 시집 사정과 자 신의 직업으 로 인해 2017년에 국 적을 한국으 로 변경)	있음	-중학교까지 : 일 본 학교 -고등학교~대학 교 : 조선학교 -취업 : 조선학교 에서 교사 경험 있음
--------	----	-----------	---------------------------------	--	----	--

여기에서 인터뷰 협력자 5명은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의 여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며, 총련과의 관계가 비교적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미리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명 중에는 조선학교의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3명, 어머니회의 요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3명이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어머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 협력자들은 어머니회의 일반 구성원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 제한된 견해라 볼 수 있다. 또한 사이타마현도 니가타현도 전국적으로 보면 총련의 힘이 강한 지역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이타마는 총련 지부, 분회 모두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학생 수도 많은 편이다. 또한 니가타 조선학교는 지금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부득이 휴교 상태에 있으나, 총련 니가타현 본부 자체는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92년부터 니가타와 원산 사이에서 만경봉호가 취항하고 있었으며, 재일조선인들의 친족 방문과 조선학교 학생들의 수학 여행에 해당되는 ‘조국 방문’으로도 이용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업에서 니가타현 본부가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³⁹. 즉, 사이타마와 니가타라는 지역이 여성동맹과 총련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선학교와 어머니회의 활동도 다른 도시에 비하여 총련과의 관계가 더 강할 가능성도 있다.

4. 이론적 틀

1) 여성 주체 조직의 자율성

본 연구에서는 몰리뉴(Molyneux, 1988)의 이론적 틀을 참고로 한다. 이는 여성들의 집합 행동의 분석 축으로 조직의 자율성을 제기한 것이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독립된 운동’(independent movements)은 여성들이 자율적인 조직(autonomous organization)에 관한 것이다. 여성들이 독자의 목표를 설정하며 독자의 조직 형식과 갈등을 경험한다. 즉 이러한 단체는 자치 커뮤니티(self-governing community)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독립된 운동’이란 상위 권위체의 존재와 다른 정치적 행위자의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운동을 가리킨다.

³⁹ 『朝日新聞』, 2003년 8월 26일.

두 번째로 ‘연계적 결합’ (associated linkage)은 자신들만의 목표를 가지는 독립적인 여성 조직 중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 여성 조직이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진 다른 정치 조직과 연맹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이는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지시된 동원’ (directed mobilizations)은 권위와 이니셔티브가 외부에 존재하며, 여성 조직이 상위 조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⁴⁰. 몰리뉴의 이론은 여성을 주체로 하는 조직의 활동 내용은 물론, 외부와의 조직 간 구조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학교 내외의 여러 조직과 관련성이 있는 어머니회 분석에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2) 여성들의 노동

여성들은 농업과 임금노동 등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노동 외에도 가사나 아이를 돌보는 일 등 가정 내외에서 다양한 노동에 종사하고 생계를 꾸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과소 평가되면서 여성의 노동은 비가시화된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의 정의를 ‘가정 밖에서 종사하는 수익 창출 활동’ 이라 한다면 여성들의 노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⁴¹.

⁴⁰ Maxine Molyneux. “Analysing Woman’s Movements.” *Development and Change* 29(1998), pp. 219-245.

⁴¹ 일의 정의를 ‘가정 밖에서 종사하는 수익 창출 활동’ 이라 한다면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를 하다가 팔기 위한 천을 짜거나 반찬이나 과자를 조리하더라도 그것은 ‘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田中雅一・中谷文美 編, 『ジェンダーで学ぶ文化人類学』(京都:世界思想社, 2005), pp. 126-127.

이반 일리치(Ivan Illich, 1982)는 ‘그림자 노동’ (새도 워크, shadow work)이라는 개념을 제창하였다. ‘그림자 노동’으로 인정되는 노동 조건은 첫째로 “인간 생활의 자립과 자존의 활동이 아니라 형식적인 경제를 지탱하는 일”, 둘째로 단순히 “지불이 좋지 않은 임금 노동”이 아니라 “임금이 지불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임금 노동과 그림자 노동은 가정 또는 가정을 통한 “산업 노동의 두 가지 상보적인 형태”이며, 그림자 노동에는 여성이 집이나 아파트에서 하는 대부분의 가사, 쇼핑에 관한 여러 활동, 출퇴근에 소요되는 수고 등이 포함된다⁴². 집안일이나 재생산 노동은 보상이 없는 ‘무급 노동’ (언페이드 워크, unpaid work)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반 일리치는 무급 노동보다 더 나아가 임금 노동의 뒤에서 행해지는 비가시화된 일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⁴³.

한편, 미카엘라 디 레오나르도(Michaela Di Leonardo, 1987)는 미국의 이탈리아계 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여성들의 일에는 가사와 육아, 노동 시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친족 관계(kinship) 일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기 중 세 번째 범주, 즉 ‘친족 일’ (the work of kinship)은 디 레오나르도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지만, ‘친족 일’은 ‘가정의 노동’ (household labor)과 ‘가정 내 네트워크’ (domestic

⁴² Ivan Illich 著, 玉野井芳郎・栗原彬 訳, 『シャドウ・ワーク 生活のあり方を問う』(東京: 岩波書店, 1982), pp. 182-184, 194.

⁴³ 무급 노동의 측정과 평가는 북경세계여성회의(1995)의 행동 강령에도 담겨 있다. 落合恵美子・赤枝香奈子 編, 『アジア女性と親密性の労働』(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2), p. 6.

network)라는 관점의 통합에서는 결여된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⁴⁴. ‘친족 일’ (kin work)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친족 일’로 나는 친족을 위한 방문, 편지, 전화, 선물, 카드를 포함한 가정 간 친밀 관계의 개념, 유지 및 의식 축하에 대하여 언급한다.

(예) 휴일 모임의 조직, 준 친족 관계의 창설과 유지, 특정 유대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결정, 이러한 모든 활동에 대한 성찰의 정신적인 노력, 민중과 대중 매체 모두의 이미지에 대해 가족과 친족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창조와 소통”⁴⁵

발달된 산업 사회에 있어서 친족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는 일(work)로 볼 수 있으나, 그들은 집안일이나 육아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일’이며 적절한 힘 배분에 관한 명확한 동의를 결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대개적으로 친족의 업무에 관련된 활동(kin-work activities)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본질에는 계급보다 오히려 젠더가 있다는 것이다⁴⁶.

위와 같이 ‘여성의 일’에 대한 개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권숙인(2017)은 재일조선인 1세의 삶과 경험에 대하여 ‘일’과 ‘노동’에 초

⁴⁴ Di Leonardo, Micaela, “The Female World of Cards and Holidays: Women, Families, and the Work of Kinship,”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2, 3 (1987), pp. 442-443.

⁴⁵ Michaela Di Leonardo, 1987, pp. 442-443에서 인용.

⁴⁶ Michaela Di Leonardo, 1987, pp. 443, 446, 449.

점을 맞추어서 전망했다. 43 명의 재일조선인 1세 여성들의 라이프 히스토리틀 통하여 재일조선인 여성의 노동 경험을 밝히며, 민족 차별과 가부장적 구조에 의한 이중 차별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재일조선인 여성의 삶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과정에서 권숙인은 미카엘라 디 레오나르도(1987)의 ‘친족 일’ 개념을 계승하면서, 재일조선인 1세 여성의 일과 노동의 ‘특수성과 보편성’으로 ‘여성의 일’을 개념화시키는 것을 주장하였다.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결혼한 여성이 남계 친족 관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정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제사라고 한다⁴⁸.

여기에서, 권숙인(2017)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커뮤니티 워크’(공동체 일, community work)이다. 권숙인은 커뮤니티 워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친족 관련 일 외에도 민단이나 총련, 교회나 절,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여성들이 담당한 여러 일들도 에스닉 커뮤니티로서 재일한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친족 일’에 빗대어 ‘공동체 일’(community work)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⁴⁷ 권숙인,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어요” -재일한인 1세 여성의 노동경험과 그 의미」, 『사회와 역사』 113 (2017), pp. 42-44, 52.

⁴⁸ 권숙인, 2017, p. 73.

⁴⁹ 권숙인, 2017, p. 74에서 인용. ‘공동체 일’에 관련하여, 민단 부인회 부회장과 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인회 일에 대해서 ‘조직의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사례가 바로 결혼식 때 음식을 마련하거나 올림픽 때 버스를 대절하고 주먹밥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재일조선인 사회 결혼식 때 음식 준비, 도쿄 올림픽 때의 응원, 교회 활동, 총련의 조선학교를 둘러싼 투쟁 등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워크가 여성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수행하는 이 일들이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권숙인은 이러한 커뮤니티 워크가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족 일’ 과 같이 생각되어 ‘보이지 않는 일’ 또는 ‘보조적인 일’로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⁵⁰. 이러한 점에서 재일조선인 여성의 일에 커뮤니티 워크를 개념화할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회는 조선학교에 존재하는 학부모 모임 중 하나이며, 재일조선인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community)이다. 그리고 어머니회라는 조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그 업무 내용은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의 ‘조직의 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학교에는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회와 남녀 혼성인 교육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어머니회가 맡는 조직의 일의 활발성 및 업무의 다양성은 눈에 띈다. 어머니회에서 어머니만이 맡고 있는 활동도 꽤 많은데, 이러한 활동에는 이반 일리치가 정의한 ‘그림자 노동’에 상당하는 ‘무급 노동’(unpaid work)도 포함되어 있는가. 또한 남성 사회를 위한 부속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어머니회의 일을 총

⁵⁰ 권숙인, 2017, pp. 74-75.

런계 커뮤니티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사회적 역할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3) 총련의 젠더 구조

어머니회는 총련계 재일여성인 어머니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한편, 남성에 이니셔티브가 있거나 혹은 남성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부모 조직은 교육회와 아버지회라는 형식으로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조선학교의 학부모 조직에 남녀 구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회라는 조직을 총련 안의 젠더 구조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총련 조직의 젠더 관련 이론적 틀로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가부장적 구조⁵¹이다. 서아귀(2012)에 의하면, 가족적인 젠더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총련은 상부 조직 및 외부에 대한 대표 조직으로서 다양한 참여 단체와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산하 단체에 보이는 카테고리는 “민족 조직이 가부장적 구조 가족의 메타과

⁵¹ 가부장적 구조에 대해서는 上野 (2009)를 참조할 것. 上野 (2009)는 가부장제에 대하여 “성별에 의거하여 권력이 남성 우위로 배분되며 역할이 고정적으로 배분되는 관계과 규범의 총체”(瀬地山)라는 정의는 성지배(性支配)에 물질적인 기초가 있다는 인식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가부장적 구조의 물질적인 기초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노동력 지배를 말한다”(Hartman)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부장적 구조의 폐지는 “개개인 남성이 태도를 고치거나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물질 기반”으로 “제도와 권력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남성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가부장적 전략에는 “여성을 임금노동에서 배제하는” 것과 “여성의 노동을 남성의 노동보다 낮게 보며 여성을 거기에 가두는” 것을 들고 있다. 上野千鶴子, 『家父長制と資本制 マルクス主義フェミニズムの地平』(東京: 岩波書店, 2009), pp. 70-75.

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성동맹의 어떤 회원은 “총련은 남성의 조직. 그래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아니라 재일조선인남성총연합회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덧붙여 서아귀는 여성동맹은 재일조선인 남성을 배우자로 하는 여성을 포괄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여성동맹과 부인회는 모두 ‘아내’와 ‘어머니’라는 가족의 입장이 민족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어 있다. 특히 ‘어머니’ 역할은 조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동포 남성과 결혼하고 자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족을 잇는 아들을 낳아 기르고 남편 가족에게 봉사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들은 가정 영역을 지키는 책임이 있으며, 가사, 육아, 간호 등 재생산 노동을 하며, 일본의 노동 시장에 있어서 민족 차별을 받는 남성들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보완 해왔다.”⁵²

총련은 남성이 조직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을 밑에서 지원하는 보완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총련의 기존의 가부장적 구조가 학교의 어머니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한 어머니회를 둘러싼 젠더 불평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오늘날까지 일관된 이념으로 간주되는지, 혹은 젠더 의식의 변화가 인정되는 부

⁵² 徐阿貴, 2012, pp. 70-71에서 인용.

분도 있는가. 이러한 점을 어머니회의 조직 구조와 운영 활동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II.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개요

1. 조선학교의 역사

조선학교의 역사는 1945년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1세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어강습소’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 이후 조선학교의 운영은 일본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해방 직후의 재일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으며, 취학 연령에 도달한 재일조선인 아이들은 일본의 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1948년 1월 24일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에서 문부상 오사카출장소장 및 각 도도부현 지사들에게 ‘조선인 설립 학교의 취급에 대하여’(朝鮮人設立学校の取扱について)라는 통지가 나왔다.

“따라서, 조선인 자제들도 학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본인과 똑같이 시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또한 사립 초등학교의 설치는 학교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도부현 감독청(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의 교육 내용은 각종 학교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⁵³

⁵³ 李修京・井竿富雄・吳永鎬, 「日本における外国人学校政策と在日朝鮮偉人の教育事情」, 『東京学芸大学紀要 人文社会科学系 I』 61 (2010), p. 149에서 재인용.

이는 전년 194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을 이유로 조선인 학교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통지로 인해 재일조선인이 민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강제적인 일본의 일반 학교 취학이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조선학교 폐쇄령이 발령되면서 정부에 의한 경찰 부대를 이용한 몇 차례의 탄압이 이루어졌다. 1948년 4월 한신교육투쟁 중에는 4월 24일 효고현에서 재일조선인 쪽에서 지사에게 조선학교 폐쇄 명령을 철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점령군이 ‘비상사태선언’을 내고 재일조선인들과 그들을 원호하는 일본인들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4월 26일에는 김태일 소년이 경찰 무대에 의한 발포로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⁵⁴.

한편, 1940년대 후반부터는 동시에 ‘공교육 안의 민족교육’으로 ‘민족 학급’이 시작되었다. 민족 학급은 1948년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인 학교 폐쇄령의 대체 조치로 시작된 것이었다⁵⁵.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1948년 1월 24일 문부성에서 나온 학교 교육 국장 통지 ‘조선인 설립 학교 취급에 대하여’에는 조선학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통지에서는 과외 학습으로서의 조선말 교육에 대해 “조선말 등의 교육을 과외 시간에 하는 것은 무방하다”라는 언급이 이루어졌다. 즉, ‘과외 학습’이라는 조건 부여로 민족교육을 일본의 공교육

⁵⁴ 梁陽日, 「大阪市立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課題と展望—民族学級の教育運動を手がかりに—」, 『Core Ethics』 9 (2013), p. 246.

⁵⁵ 민족 학급은 공립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방과 후 지자체가 임용하는 재일조선인 민족 강사가 재일조선인 학생들에게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쳤다. 田中宏, 『在日コリアン権利宣言』(東京: 岩波書店, 2002), pp. 27-28.

안에서 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재일조선인 학생들에게 민족 교육을 실시하는 재일 ‘민족 강사’가 각 지자체에 의해 임용되었으며, 민족 학급의 설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49년 조련의 해산 명령 후에는 다시 조선학교 폐쇄 통보가 나왔기 때문에, 공립학교의 민족 학급이 용인된 것 자체가 당시 조선인 학교를 폐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알리바이’였다는 지적도 가능하다⁵⁶.

그 후,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것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낸 통달로 인하여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였다.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학교에 취학 의무가 없다는 방침으로 변경하여, 조선학교는 일본의 학교 체계에서 분리되었다⁵⁷. 그 이후 재일조선인들의 저항 운동을 통해 민족 학교의 재건이 진행되어서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민족 학교로 조선학교가 정비되어 갔다. 1955년에는 총련이 결성되어 조선학교는 총련을 운영 모체로 설립이 진행되었다. 또한 1958년에는 김일성 주석이 조선학교의 민족 교육을 위하여 장학금과 교육원조비를 보냈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학교 건설 사업은 가속화되었다. 실제로 1959년부터 1962년 사이에 만들어진 조선학교는 76개였다⁵⁸.

⁵⁶ 金兌恩, 2006, pp. 25-26.

⁵⁷ 曹慶鎬, 「『朝鮮学校コミュニティ』と 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 —朝鮮学校在学生を対象としたインタビュー調査を通じて—」, 『ソシオロギス』35 (2011), p. 96.

⁵⁸ 총련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이 ‘1950년대 중반부터의 재일조선인들의 싸움’⁵⁹도 오래 가는 못 했다. 한일조약이 체결 된 1965년 12월에는 두 가지 문부차관 통달이 각 도도부현에 송부되었다. 그 중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교육 시설의 취급에 대하여’ (朝鮮人のみを收容する教育施設の取り扱いについて) 라는 문서 중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사립 교육 시설의 취급에 대하여’ 라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 또는 국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인 학교는 일본 사회에 각종 학교의 지위를 주는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각종 학교로 허용 하지 말아야 한다.”⁶⁰

현재 조선학교는 ‘각종 학교’ 라는 법적 틀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법 제1조에 해당되는 소위 ‘1조교’ (一条校)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금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교교 무상화의 비적용 등 일본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⁵⁹ 1948~1949년에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하여 경찰 부대를 통한 탄압을 반복하여 많은 조선학교를 폐쇄시켰으나, 1950년 중반부터 재일조선인들이 민족 학교를 재건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田中(2002)는 ‘재일조선인의 싸움’ (在日の闘い) 이라고 부른다. 田中, 2002, p. 25.

⁶⁰ 李修京・井竿富雄・吳永鎬, 2010, p. 149에서 재인용.

2. 어머니회의 역사

1) 어머니회의 시작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기원은 언제일까.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결성되었는지 하는 점에 대하여, 1950년대 또는 보다 이전에 첫 번째 어머니회가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 민족교육의 보급과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에서 겪었던 여러 문제 속에서 각지 조선학교에 어머니회라고 불리는 조직이 단계적으로 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첫째, 1950년대보다 더 이전에 학교 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우리 학교를 엮는 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도쿄 조선제1초중급학교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집에 ‘제 7회 어머니회 기념 도쿄제일조련초등학교’라는 기재가 있으며 그 촬영 날짜는 1947년 6월 15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것이 가장 오래된 어머니회에 관한 기록으로 생각된다”라고 한다⁶¹. 또한 1948년 4월 24일 한신교육투쟁의 다음날인 4월 25일에 발행된 해방신문에도 어머니회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 교육투쟁을 위해 “여성동맹 도쿄 본부에서는 관하 각 지부 맹원을 총동원, 어머니회를 조직”하여 학습회를 열린 것과 동시에, 오래된 잡지, 신문지, 쌀 한 홉 캄과 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도쿄 본부에서 이보다 조금 전에 조직적으로 어머니회를 발족시킨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⁶².

⁶¹ 그러나 어머니회의 발족연도와 결성된 경위 등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会, 2001, p. 145.

⁶² 또한 어머니회 발족이 조선학교 탄압 이후였다는 해석이 있다.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会, 2001, p. 146.

또한 1940년대에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설립된 것을 시사하는 다른 근거로 여성동맹 70주년 기념 책자의 설명이 있다. 그것은 “박정현 위원장은 해방 직후 아라까와 조선소학교의 강사, 도교조선제1초급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시작으로 민족애국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46년 2월 조선 아라까와 지부 부녀부를 만들어 사업하였다”⁶³라는 부분이다. 박정현 위원장은 여성동맹의 결성 당시부터 중앙 위원장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김은순 위원장이 공화국으로 귀국한 뒤, 그 후임으로 1961년에 여성동맹 중앙위원장에 선출된 인물이다. 여기에는 박정현 위원장이 어머니회 회장에 취임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해방 직후’라는 표현으로는 1940년대 후반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1950년 이전에 조선학교에 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50년대까지 어머니회가 설립한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료도 존재한다. 홍정은(2015)는 『인민 한글 교본』에 1953년 시점에 이미 ‘어머니회’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⁶⁴. 그러나 이것이 어느 지역의 학교 어머니회에 대한 설명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여성동맹 70주년 기념지에는 1957년 ‘재일조선인 교육자 대회’의 개요에 대하여 “교직동, 교육회, 여성동맹, 어머니회 대표 참가”라는 기재가 있다⁶⁵. 따라서 적어도 1950년대에는 어머니회를 조직하고 있는 조선학교가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총련이 인지하고 있었던 조직이었다고 생각된다.

⁶³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7, p. 29.

⁶⁴ 洪ジョンウン, 2015, p. 9.

⁶⁵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7, pp. 87.

여기에서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시작에 대하여 1940~1950년도는 총련의 여성 조직의 초창기와 관련된다. 1945년 10월 15일에 조련이 결성되어 조련 안에 어머니들의 조직으로 ‘부녀부’가 새로 설치되었다. 부녀부의 활동 지침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재일조선인 여성의 권리 획득이다⁶⁶. 당시 일본 사회에 남겨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안 좋았으며, 조선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된 민족적 차별은 물론이고 여성 차별도 심했다. 그런 부녀부는 특히 여성들의 해방과 선거권 획득,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둘째는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교육 촉진과 문맹 퇴치를 향하고 있었다. 재일조선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문맹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맹을 없애자는 마음을 먹고 의지 강한 재일동포 여성들이 부녀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⁶⁷. 이러한 목적은 둘 다 전쟁 직후 일본 사회의 혼란 상황과 그 중에서도 특히 권리와 자유를 속박되어 있었던 재일 여성들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에 1946년 8월에 조련에서 청년부와 부녀부가 독립하여 ‘재일본조선인부녀동맹’ (부녀동맹)이 생겼다. 그리고 1947년 10월에 여성동

⁶⁶ 1946년 당시 부녀부 부장이었던 김운순은 부녀부 설치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조선련맹에서 부녀부를 가지게 된 이유는 첫째로 우리 조선 부녀들은 사회적으로 하나의 물품처럼 다루어지면서 인간으로서 인권도 자유도 가지지 못한 노예 취급을 받아왔다”. 李玲実, 「解放直後の在日朝鮮人女性運動の生成と女性活動家 —『在日本朝鮮民主女性同盟』結成過程を中心に—」, 『日韓相互認識』8(2017), p. 31.

⁶⁷ 부녀부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았다. (1)부녀의 완전한 해방과 남녀동등실현, (2)18세이상의 선거권, 피선거권향유, (3)일반부인 문맹퇴치, (4)공창기폐지, 인신매매철폐, (5)불건적, 노예적관습 철폐, (6)부녀의 과격한 노동금지, (7)신생활운동전개, (8)세계진보적민주주의부인운동과 연대, (9)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7, pp. 16-17.

맹이 결성되었다.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결성대회’에서 여성동맹의 기본방침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에는 ①계몽교육활동, ②이미 꾸려진 지역, 준비과정지역, 미조직지역 등 3단계로 분화된 활동방침, ③생활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⁶⁸. 부녀부, 부녀동맹,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진 여성동맹의 방침 속에서 교육이라는 항목은 계속해서 중요시되어 온 것이다. 즉, 어머니회의 시작은 총련 산하의 여성 조직이 결성된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신교육투쟁 때 여성동맹 도쿄 본부에서 어머니회가 조직되었거나 어머니회와 부녀부 양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점에서 학교 어머니회와 총련 산하의 여성 조직은 그 초창기부터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회의 전개

그 후,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각 학교 어머니회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보인다. 홍정은(2015)에 따르면 『오사카 민족 교육 60년지』(大阪民族教育60年誌)에는 “1971년 오사카 조선제4초급학교, 1974년 히가시오사카 조선초급학교, 1975년 나카오사카 조선초중급학교의 순으로 정식으로 어머니회가 발족했다”는 기재가 있다. 다만 홍정은이 실제로 접촉한 어머니로부터는 오사카에서 1960년대 초에 처음 어머니회가 탄생했다는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도도부현 안에서도 각 학교마다 어머니회 설립 시기가 다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⁶⁹. 또한 다른 도도

⁶⁸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7, p. 18.

⁶⁹ 洪ジョンウン, 2015, p. 9.

부현에 대해서도 어머니회의 발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언급한다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니가타조선초중급학교에 교사로 근무했었던 인터뷰 협력자 E 씨에 따르면, 니가타 학교에서는 1980년대에 여성동맹 안에서 어머니회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들이 그 때 당시 여성동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과 학교의 여성 교무주임과 협력하여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이상에서 본 봐와 같이 어머니회의 설립 연도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좀 더 나아가 조선학교 설립과 동시에 어머니회가 결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둘러싼 일본 사회의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각 학교 어머니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1960년대 이후 이러한 움직임에는 1960년대 여성동맹에 나타난 글을 쓸 줄 아는 기혼 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 주체가 관련되어 있다. 여성동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2세 여성 활동가들이 조선학교 어머니회를 결성하였다는 것이다⁷⁰.

<표 5> 각 학교 어머니회의 설립 시기

학교 이름	어머니회 설립 시기	비고
-------	---------------	----

⁷⁰ 洪ジョンウン, 2015, p. 9.

도쿄제1조련초급학교 (현: 도쿄조선제1 초중급학교)	1947년 이전	‘우리 학교를 엮는 모임’ (2001) 에 의하면, 창립 50주년 기념 사 진집에 “제7회 어머니회 기념 도 쿄 제일조선 초등학교” (촬영 일: 1947년 6월 15일)라고 적혀있는 단체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1971년	홍정은 (2015)에 의하면, 『오사카 민족 교육 60 년 잡지』에 성립년에 관한 기재가 있다
히가시오사카 조선초급학교	1974년	상동
나카오사카 조선초급학교	1975년	상동
오사카후쿠시마 조선초급학교	1977년	오사카후쿠시마조선초급학교의 홈 페이지 에 설립 시기에 대한 기재가 있다 ⁷¹
토우노우 조선초중급학교 (폐교)	1978년	변희재 · 전철남 (卞喜載 · 全哲男, 1988)에 “이 학교의 어머니회는 활동하기 시작한지 이력저력 10년 이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⁷¹ 오사카후쿠시마 조선초급학교의 홈페이지 참조.

치바조선초중급학교	1983년	-치바조선초중급학교 홈페이지 에 설립 시기에 대한 기재가 있다 ⁷² - 『월간 이오』 13호 (1997년)에 의하면, 치바 학교의 어머니회는 “전국적으로 봐도 조선학교 어머 니회의 선구적인 존재이다” 라고 적혀 있다 ⁷³
오카야마 조선초중급학교 (구: 쿠라시키조선초중 급학교)	1985년 이전	오카야마조선초중급학교 홈페이지 에 “1985년 3월 어머니회 회의실 설치” 라는 설명이 있다 ⁷⁴
교토조선제2초급학교	1987년 이전	교토조선제2초급학교의 홈페이지 에 “1987년 2월 본교 <어머니회> 활동이 높이 평가되어 공화국 교 육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라는 기재가 있다 ⁷⁵
이바라키 조선초중고급학교	1987년	이바라키조선초중고급학교 홈페이 지에 설립 시기에 대한 기재가 있다 ⁷⁶

⁷² 치바조선초중급학교 홈페이지 참조.

⁷³ 『月刊イオ』 13 (東京: 朝鮮新報社, 1997) , p. 18.

⁷⁴ 오카야마조선초중급학교 홈페이지 참조.

⁷⁵ 교토조선제2초급학교 홈페이지 참조.

⁷⁶ 이바라키조선초중고급학교 홈페이지 참조.

니가타조선초중급학교	1980년대	이 연구의 인터뷰 협력자인 E 씨의 발언
------------	--------	---------------------------

3. 어머니회 조직

1) 어머니회의 위치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여성동맹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머니회가 여성동맹의 소속 또는 산하가 아니더라도 두 가지 조직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니가타 및 사이타마 학교는 전자인 ‘여성동맹 안의 어머니회’에 해당된다. 사이타마 학교의 어머니회의 조직 구조를 설명하자면 총련 본부(‘사이타마 우라와’)가 있으며, 그 안에 지부(중부, 동부, 북부 등)가 있으며, 그 아래에 분회(‘오미야히가시 1분회’ 등)가 있다⁷⁷. 여성동맹은 분회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여성들만의 집단으로, 총련에 속하는 여성들이 결혼해서 어머니가 되면 자동적으로 여성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그 이후 아이가 조선학교에 입학할 때 어머니들이 학교 내의 단체이면서도 여성동맹의 산하 조직인 어머니회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이타마 학교 어머니들의 “어머니회이기도 하고 녀맹이기도 한다”라는 말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단, 앞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공식적으로 여성동맹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없는 경우에도

⁷⁷ 사이타마는 학교 주변에 재일조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히가시1’, ‘히가시2’처럼 분회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학교의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의 구성원에 중복성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실제로 여성동맹의 간행물에는 각 학교 어머니회의 활동에 관한 기사도 있으며⁷⁸, 여성동맹이 어머니회와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회 가입 및 탈퇴

우선 학교 어머니회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어머니도 어머니회에 들어간다는 자동성이 있다. 어머니회 전용 신청서는 없으며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가 신년도에 발행하는 어머니회의 가정통신문에서는 ‘새로운 회원’으로 학교 1학년 아이들의 어머니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환영한다. 또한 어머니회 회비는 매달 수백 엔이 일반적이지만,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다.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는 한 달에 300엔씩이며, 이를 어머니회 급식의 재료비 등으로 이용한다. 또한 니가타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한 달에 500엔이었다. 한편 나가노조선초중급학교는 어머니회 및 아버지회 회비를 합쳐서 한 가정 당 1년에 2만엔이라고 하며, 회비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⁷⁸ 여성동맹 기관지 『조선녀성』(2018년 봄·여름호)에는 나가노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가 <저고리시리-즈>로 한복처럼 생긴 텀블러나 공책 등의 물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나, 조선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위해 투쟁하는 오사카 학교의 어머니들의 모습 등이 게재되어있다.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同胞女性をネットワークする조선녀성』2018春・夏号 (No. 578), pp. 28-29.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머니회를 일단 ‘졸업’⁷⁹하게 되기는 하나, 어머니회의 ‘OG (old girls)회’⁸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카야마조선초중급학교 OG 어머니회인 ‘학교사랑색동회’(愛校セツトン会)는 아이들의 졸업과 함께 어머니회를 형식적으로 졸업한 어머니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컴퓨터와 피아노, 스쿨 버스 등을 학교에 기증한 적이 있다⁸¹. 또한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어머니들이 어머니회를 졸업 후 1~2년간은 어머니회 OG로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운동회는 자신의 아이가 경기에 나와 있으면 어머니들은 매점에 설 수 없어서 OG들이 맥주와 김치, 오르되브르를 판매하고 있어요. 준비는 어머니회, 판매는 OG회 같은 식으로 해요”(C 씨)

또한 E 씨에 따르면 니가타조선초중급학교에서도 각종 행사에 OG들이 참여하여 음식을 판매하며, 그 수익을 어머니회에 환원하고 있었다. 즉, 아이가 학교를 떠나도 어머니들은 OG로 어머니회에 자주 등장하고 학교에 기여하는 것이다.

⁷⁹ 오카야마 학교 어머니총회에 관한 기록으로, “아이들의 졸업과 동시에 어머니회를 졸업하는 학부모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라는 부분이 있다.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8, p. 40.

⁸⁰ 일본어로는 학교나 동아리를 비롯한 조직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하여, 남성의 경우 ‘OB’ (Old Boys)라고 하며 여자의 경우 ‘OG’ (Old Girls)라는 일본식 영어를 사용한다. 단, 남녀 구별 없이 OG라고 부르는 경우도 꽤 많다.

⁸¹ 『月刊イオ』 47, 2000, p. 28.

3) 어머니회의 운영

우선 어머니회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초등부와 중등부, 심지어 유치부 등이 병설되어 있는 조선학교의 경우 전체를 총괄하는 어머니회 대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및 유치부에서는 전체 어머니회 회장 한 명이 유치부에서 중등부까지를 담당하며, 어머니회 회장을 포함한 6 명이 학교 ‘상임 이사회’를 구성한다. 또한 유치부에는 별도로 ‘책임자’가 존재함으로써 전체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니가타조선초중급학교는 초중 일관 학교인데, 어머니회의 운영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임원의 결정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규모 학교라면 선발제, 소규모라면 모두가 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사이타마학교에서는, 임원은 각 학년에 두세 명 정도 있는데 임원을 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고 한다.

어머니회 회장 결정에 관련하여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해마다 어머니회의 회장을 정할 때 여성동맹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머니회 회장 선발 자체는 학교 안에서 그리고 어머니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은 하나, 회장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 여성동맹의 심의에 회부된다. 결국 회장으로 결정되는 데에는 여성동맹 위원장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이타마 학교는 여성동맹 산하에 있다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어머니회 회장 결정 시 여성동맹의 개입에 관해서는 어머니회가 여성동맹의 산하에 있는 다른 도도부현

의 학교에서도 똑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활동은 각 학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어머니회가 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총련 본부나 여성동맹에서 제공되는 명문화된 공통 이념이나 회칙, 활동 방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회의 활동 방침을 결정하며 공유하는 모임으로, 각 학교에서 ‘어머니회 총회’가 개최된다. 새 학기에 어머니회 어머니들 모두가 참석하여 그 학기에 임원을 맡는 어머니들이 소개되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여러 학교 어머니회가 모여서 ‘어머니회 연락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참여하는 모임으로 ‘조선학교 전국 어머니회연락회’가 있다. 또한 비교적 조선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연락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오사카에는 ‘오사카부 어머니연락회’, 가나가와에는 ‘가나가와 조선학원 어머니연락회’, 도쿄에는 ‘도쿄조선학교 어머니회연락회’가 있다⁸². 어머니들은 이러한 연락회를 통하여 다른 학교 어머니회와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교 무상화 요청활동을 포함한 집회나 행사를 합동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⁸² 도쿄조선학교어머니회연락회 블로그, Yokohama C Plat 홈페이지, 여성동맹 홈페이지 참조.

Ⅲ. 어머니회의 활동

1. 국가와 지자체를 향한 요청 활동

조선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자체와 정부,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한 요청 활동을 실시해 왔다.

1980년대에 통학정기권할인투쟁⁸³을 처음으로 일으킨 것은 치바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였다. 당시 일본 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생 할인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는 그와 달리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⁸⁴. 특히 조선학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할인은 전혀 없어서 정기권 가격이 성인 요금과 동일한 금액이었다. 1987년 4월 1일 국철이 민영화되어 JR로 다시 시작한 것을 계기로 동년 5월에 치바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가 신케미가와 역장에게 차별 철회를 요구하였다⁸⁵. 인터뷰 협력자인 E씨에 따르면 치바 학교의 어머니들의 운동이야말로

⁸³ JR 각사는 민영화 이후에도 구 국철 시대의 정기 할인 규칙을 계속해서 적용하였다. ‘여객 영업 규칙’과 ‘학교 및 구호 시설 지정 취급 규칙’에 따라서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1조교’의 고등학생은 성인 요금의 10%, 중학생은 30%, 초등학생은 65% 할인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각종 학교’로 분류되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고급학생은 성인 요금과 동일한 가격이며 초등학생은 성인 요금의 반액이라는 요금 체제가 계속된 것이었다. 朴三石, 『問われる朝鮮学校処遇 日本の国際化の盲点』(東京:朝鮮青年社, 1992), pp. 15-16.

⁸⁴ 예를 들어 JR 니시니혼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통학 정기 운임의 할인은 학교교육법에 의하여 문교정책 상의 배려로 인해 당시 국철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고, 이는 국가의 문교정책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民族教育編集委員会, 『民族教育 1991年度에 日本の 各 新聞에 掲載된 民族教育에 関한 資料』(1992), p. 131.

⁸⁵ 『月刊イオ』 13, 1997, p. 19.

“(여성동맹과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인식되는 한, 어머니회의 첫 번째 요청 활동”이라고 한다.

JR에 의한 차별 대우는 즉시 해결되지 않았으며, 요청 활동은 치바의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1993년 4월에는 도쿄에서 차별의 즉시 철폐를 목표로 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의 궤기 대회가 열렸으며, 도카이 지방에서도 요청 사업이 전개되었다. 또한 그 후에는 학교의 어머니회와 여성동맹 및 총련의 각 기관이 주도가 되어 약 60만 명의 서명을 모아 1994년 1월에는 어머니회의 대표들이 일본 사회당 부장에게 서명의 일부를 넘겨서 정기관 요금 차별을 철폐하도록 다시금 요구하였다. 최종적으로, JR 각사는 1994년 4월부터 조선학교 학생에 대한 학생 할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⁸⁶.

또한 1994년에 ‘치마 저고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들이 사건의 실태와 방지를 각지에서 호소하였다. ‘치마 저고리 사건’이란 1994년 4월 중순 이후 몇 달 간 및 1998년에 이르기까지 등학교 중인 조선학교 여학생이 표적이 되어서 당시 교복으로 착용하고 있었던 한복이 찢어지거나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1994년 4월에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찢어지면서 “조선인 놈! 나쁜 놈!”이라는 폭언과 함께 역 승강장에서 밀어 떨어뜨린 것이었다⁸⁷. 어머니회 전국연락회의 피해 건수 조사에 따르

⁸⁶ 여성동맹과 학교 어머니회가 같이 진행한 활동이었다.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7, pp. 54-55.

⁸⁷ 在日朝鮮人・人權セミナー, 『在日朝鮮人と日本社会』(東京: 明石書店, 1999), pp. 20-22.

면 1994년 4월부터 두 달 동안의 피해 건수가 139건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4년 6월 24일에는 도쿄조선문화회관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 사건의 방지를 요구하는 재일 조선인 어머니 중앙 대회’를 전국의 학교 어머니회 대표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어머니회 회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여성동맹의 구성원들도 모여서 총 2500 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어머니회 중앙연락회의 발족에 이르러, 같은 해 8월에는 UN인권소위원회 차별 방지 및 소수자 보호위원회 제 46차 회의에 조선학교 어머니회 중앙연락회 회장이 참석하였다⁸⁸. 또한 1996년도에 통학 중인 조선학교 학생들을 겨냥한 폭행이나 폭언 사건이 재차 일어났을 때는 총련 도쿄 본부에서 여성동맹 도쿄 본부의 어머니들이 긴급 집회를 열어서 도쿄 조선학교 어머니회 이름으로 요청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폐회 후에는 어머니 대표와 각 학교의 교장들이 경시청과 각 역을 방문하여 사건의 방지와 범인 체포를 요구하였다⁸⁹.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조선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국립 대학교 수험 자격 차별이 문제로 떠올랐다. 국립 대학교 측은 조선학교가 학교교육법 제 1조에서 규정된 ‘1조교’에 해당되지 않는 ‘각종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1995년 시점에서 일본 공립 대학교를 포함한 184개 학교가 조선학교 졸

⁸⁸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7, pp. 53-54, 97.

⁸⁹ 民族教育編集委員会, 『民族教育 1996年度에 日本의 各 新聞에 掲載된 民族教育에 関한 資料』(1996), p. 89.

업자들에 대해 입시 수험 자격을 인정하고 있었던 반면⁹⁰, 이는 일부 학교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국립 대학교 입학 시험은 여전히 조선 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들에게는 그 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학교 수험 자격을 취하려고 한다면 대학교입학자격검정이 있으나, 원래 조선학교 중급부 졸업자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학교 졸업자는 검정 응시 자격조차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립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조선학교 학생들은 조선고급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통신제나 정시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졸업한다는 ‘더블 스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선학교에서는 각 도도부현 교육회에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의 국립 대학교 수험 자격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게 되었는데, 1994년 3월에는 니시하리마조선초중급학교와 히메지조선초급학교 어머니회 어머니들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히메지역에서 가두 서명을 실시하면서, “사립 학교 수준의 재정 지원과 국립 대학교 수험 자격을 인정해라”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였다⁹¹. 또한 오사카부에서는 1996년에 오사카부 민족교육대책위원장과 오사카부 교육회장과

⁹⁰ 조선학교 졸업자에게 대학교 입시 자격을 인정하는 학교는 학교교육법의 명문을 근거로 했었다. 학교교육법 56조에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통상 과정에 의한 12년제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일반 과정 이외의 과정을 통하여 이에 해당되는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 69조 5항에는 “기타 대학교에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쓰여 있었다. 在日朝鮮人・人權セミナー, 1999, pp. 67-69.

⁹¹ 民族教育編集委員会, 1996, pp. 88-89.

오사카부 내 조선학교 어머니회 대표들이 오사카부 지사를 방문하여, 이 쿠노 조선초급학교 어머니회 회장이 대표로 지사에게 서명을 넘겼다⁹².

최근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고교 무상화 운동이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2010년 4월 1일에 시행된 ‘고교무상화법’에 의거하여 수업료 무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까지 각 지역의 조선고급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그 때마다 공소가 기각되었다. 최근에는 2018년 10월에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는 전례와 마찬가지로 조선학교에는 총련으로부터의 ‘부당한 지배’가 존재하며 문부과학성이 재량을 일탈한 사실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다. 또한 일본 사람들은 ‘키타초-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나 ‘조선학교’, 또는 ‘총련’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에 미사일이나 납치와 연결시키거나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야마모토 (2017) 는 북한에 관한 치우치고 왜곡된 정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 는 점만으로 사고가 정지되면서 조선고등학교의 무상화 부적용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차별’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라고 분석하였다⁹³.

⁹² 民族教育編集委員会, 1996, p. 114.

⁹³ 山本かほり, 「特集: 排外主義に抗する社会 排外主義の中の朝鮮学校—ヘイトスピーチを生み出すものを考える」, 『移民政策研究』9(2017), p. 39. 또한 고교 무상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하를 참조할 것. 朴三石, 『教育を受ける権利と朝鮮学校 高校無償化問題から見えてきたこと』(東京: 日本評論社, 2011).

이러한 곤경에 속에서 조선학교 어머니회에서는 고교무상화 및 보조금 획득을 요청하는 운동을 계속해 왔다.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어머니회 회장은 어머니들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학교 보호자들은 3년 전에 무상화 배제 문제가 나오고 나서는 특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보호자라는 입장을 넘어서 ‘정치가’라고 불릴 만한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⁹⁴

2010년 고교무상화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요청 활동을 해 왔다. 예를 들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는 매주 금요일에 조선학교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문부과학성 앞에서 요청하는 ‘금요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다른 학교 어머니회와 같이 담당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선대학교와 도쿄조선고급학교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고교무상화 재판이 동경에서 열릴 때는 그 재판을 방청하러 간다. 그리고 히가시오사카조선중급학교에서는 어머니들이 ‘백절불굴’(百折不屈)이나 ‘조선학교에도 배울 권리를!’이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화요운동’이라는 고교무상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쿠노조선초급학교 어머니회는 2018년 4월 24일 한신

⁹⁴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어머니회 회장의 발언을 재인용. 広島朝鮮初中高級学校オモニ会 (梁明子・朴陽子), 「特集 ウリハッキョ: 民族の誇りと共生を求める朝鮮学校 一人はみんなのために、みんなは一人のために 広島ハッキョオモニ会の活動を通じて」, 『部落解放』687(2014), pp. 39-40.

교육투쟁 70주년기념에 맞추어서 의상을 맞추고 연설과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화요행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고교 무상화 운동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13년 4월에 조선학교 어머니회 대표들이 일본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호소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사회권규약심의위원회에 참여했다. 또한 2019년 1월 16일부터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한 아동권리조약의 실시 상황에 관한 일본 보고서 심사가 이루어졌을 때도 조선학교 학생 및 어머니 대표단이 참석하여 일본 사회 속의 조선학교 현황과 고교 무상화 부적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였다⁹⁵.

2. 조선학교 운영을 위한 자금 모으기

조선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조성금이 주어지지 않으며, 학교 운영비가 압도적으로 모자란 상황이다. 학교 종류를 불문하고 조선학교의 수업료는 일본 공립 학교의 수업료보다 훨씬 비싸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조선고급학교는 고교무상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동포들에게 기부를 받는 일도 있으나, 그래도 교직원들의 월급이나 시설 확충 비용 등을 포함하여 학교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어머니회 회장은 “행정기관의 보조금이 삭감된 2년 전부터

⁹⁵ 『朝鮮新報』, 2019년 1월 26일.

는 선생님들의 월급 지급도 어려워져서 학교 행사뿐만 아니라 월급의 일부까지 보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⁹⁶.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정에서 들어오는 수업료만으로는 교직원들의 인건비도 보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회 수익의 일부를 교직원의 월급으로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활동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사랑운동’의 일환이다. ‘학교사랑운동’이란 조선학교에 있어서 “학교 운영의 자립적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 조직과 전 동포로 학교 지원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⁹⁷. 학교사랑운동이 총련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은 찾기 어렵지만, 여성동맹 간행 잡지에서 1974년 4월 여성동맹 제 16차 대회 이후 처음으로 학교사랑운동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⁹⁸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운동이 조직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학교사랑운동의 예로는 물품 판매, 폐품 회수, 벨마크 모으기 등이다⁹⁹.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판매 활동과 기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⁹⁶ 広島朝鮮初中高級学校オモニ会 (梁明子), 2014, p. 39. 또한 히로시마 학교 현재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어머니회 블로그를 참조.

⁹⁷ 총련 홈페이지 참조.

⁹⁸ 여성동맹은 조선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업에 힘을 쓴다. 통학 버스를 마련하거나 바자, 음식 판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민족 교육을 지켜나가기 위한 ‘학교사랑운동’을 계속해 왔다.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7, pp. 36-37.

⁹⁹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7, p. 72.

1) 판매 활동

어머니회는 조선학교의 각 행사에서 판매 활동을 수행하며 그 수익을 학교 운영비에 충당시켜 왔다.

어머니회의 판매 활동의 기원은 적어도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 어머니회 중에서도 1940년대 후반부터 어머니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선구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는 초대 어머니회 회장이 학교의 경제적 보조를 하고 싶다는 의도로, 운동회에서 국밥 판매를 고안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그 후에도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익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때 당시에는 학교에 전화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전화를 설치하기 위하여 재일조선인과 근린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고품 비누를 거리에서 팔아서 학교에 전화를 성공적으로 설치한 것과 동시에, 나머지 수익은 1958년에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었을 때 보조금으로 지출하였다. 그 후, 1982년 이후에는 대규모 바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⁰⁰.

또한 1990년대부터 2000년에 걸쳐서 여러 학교에서 판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94년에 아마가사키히가시조선초급학교 바자회에서는 어머니회가 직접 만든 한복 옷감을 표지로 장식한 노트와 인형을 판매하였다¹⁰¹. 또한 1997년에 도쿄조선제3학교에서는 김치를 판

¹⁰⁰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会, 2001, pp.145-150, p.152.

¹⁰¹ 1994년 당시 아마가사키히가시조선초급학교의 운영 자금 중 30%는 매년 기부금에서 충당하고 있었으나 1994년에는 그 금액이 반 이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民族教育編集委員会, 『民族教育 1994年度에 日本의 各 新聞에 掲載된 民族教育에 関한 資料』(1994), p.88.

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학교 각 교실에 한 대씩 TV를 설치하거나 바자를 개최하여 고품 비누와 손수 만든 조선 요리를 판매함으로써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했다¹⁰². 그리고 2000년에는 오카야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가 지역 축제에서 김치와 부침개, 기타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의 일부로 학교 버스와 운동장 놀이기구를 구입하여 학교에 기증하기도 하였다¹⁰³.

현재도 각 학교 어머니회는 활발하게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 어머니회가 실시하는 판매 활동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맡은 B 씨의 “잠만 있으면 바로 매점”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학교에서는 한 해를 통하여 다양한 행사가 행해지는데, 그 때마다 어머니회가 등장하여 가게 운영과 물품 판매를 자주 진행한다. 예를 들면 사이타마 학교에서는 일상적으로 김치판매를 한다. 또한 이전에 유치부에서는 학교 주방의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유 비누를 판매한 적도 있다¹⁰⁴. 여기에서 특필할 만 것은 수익은 전액 학교로 기부된다는 것이다.

¹⁰² 『月刊イオ』 14, 1997, pp. 12-13.

¹⁰³ 『月刊イオ』 47, 2000, p. 28.

¹⁰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 이전 유치부 어머니 회장을 맡았던 D 씨에 의하면, 폐유 비누를 한 개당 200엔으로 판매하였는데 목표 수익은 30~40만엔으로 설정하였다. 결국 매출이 목표 금액에 도달되지는 못 했으나, 정해진 책임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불고기 소스를 만들고 팔 때는 우선 간장을 최저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노력까지 다 포함해서 전액기부예요.” (A 씨)

어머니들은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하여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늘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래도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이제 비축금도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니가타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는 해마다 ‘미래페스티벌’에서 매점을 운영하여 그 때마다 100만 엔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돈으로 버스나 책을 구입하였다¹⁰⁵. 그 외에도 야마모토 (2014)가 조사 대상으로 한 아이치조선중고급학교의 어머니회에서는 행사 때마다 직접 만든 김밥을 600줄이나 판매하며 그 수익의 대부분이 학교로 기부되었다¹⁰⁶.

살펴본대로 어머니회의 판매 활동의 역사는 길다. 특히 바자회 개최, 그에 따른 조선 요리와 각종 물품 판매는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머니회의 판매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판매하는 물품의 다양화 및 판매 상대의 광범위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최근에 손수 만든 텀블러, 봉투, 수첩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메루카리라는 인터넷

¹⁰⁵ 인터뷰 협력자 E씨의 발언 및 이하 자료를 참조. 民族教育編集委員会, 『民族教育 2000年度各新聞に掲載された民族教育に関する資料』(2001), p. 124.

¹⁰⁶ 山本(2014)는 어머니들의 이러한 활동을 ‘봉사 활동’이라고 한다. 또한 어머니들이 학교를 지원하며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조선학교 경험이 있다. 山本かほり, 「朝鮮学校で学ぶということ」, 『移民政策研究』6(2014), p. 80.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판매까지 시작했다는 것에 대하여 어머니들은 “예전에는 손이 닿는 곳에서만 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멀리까지 판매와 발송이 잘 된다” (C 씨)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판매는 원래 나가노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다고 하는데, 나가노 학교는 2016년 4월부터 학교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저고리 텀블러와 노트 제작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각지에 발신 및 판매하며, 지원금을 학교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¹⁰⁷. 시대의 흐름과 정보 사회 발달과 함께 어머니회의 판매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도 다양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 기금 운동

어머니회의 기부금 활동 방식으로는 실제로 모금을 하는 방법과 폐지 및 폐품 회수나 기금 조성표 수집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자금 수집 방법이 있다.

먼저 모금에 대해 설명하자면, 1970년대 이전에 어떤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명기된 자료가 없었으나, 예를 들어 1980년대부터 니가타 학교에서는 한달에 1000엔짜리 한몫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니가타 학교 어머니회 초기의 활동이었다. 이것도 ‘학교사랑운동’의 일환이었으며, 학생들이 페트병에 1엔, 5엔, 혹은 10엔을 모아 어머니회에 전달하면 어머니회가 그 돈을 학교 운영비로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모금

¹⁰⁷ 『朝鮮新報』, 2016년 7월 13일.

활동은 각 학교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사이타마 학교에서도 어머니회가 모금함을 가지고 모금 활동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자금 수집 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가 1976년에 벨마크조합에 가입하여 벨마크 수집을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벨마크’란 상품에 붙어 있는 종처럼 생긴 기호이며, 협찬 회사가 제품에 부착한 마크를 PTA나 공민관 등이 모아서 정리 및 계산한 후 벨마크교육조성재단에 보내게 되면 벨마크 1점이 1엔으로 환산되어 ‘벨마크예금’이 된다. 학교는 그 예금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교재를 협력 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¹⁰⁸. 당시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에서는 벨마크 예금이 학교 용품이나 비품 구입에 쓰였다¹⁰⁹. 또한 1988년 시점에서 도우노우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재일조선인이 운영하는 파칭코 점 등과 계약을 하고 골판지의 폐품 회수를 실시하고 있었다¹¹⁰. 그리고 치바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에서도 1997년 시점에서 벨마크를 모으거나 폐품 회수를 실시하여 학교 버스 완비와 교실의 리모델링 비용

¹⁰⁸ 1960년 10월 24일 문부과학성의 인가를 얻어, 아사히신문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시설조성회’ (현 벨마크교육조성재단)을 설립하였다. 벨마크 운동은 학교 설립과 타국의 교육 원조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다. 자신의 학교에 필요한 것을 입수할 수 있으며, 벨마크가 붙어 있는 상품 구매 금액의 10 %가 자동으로 벨마크재단에 기부된다. 후자는 벽지의 학교나 특별지원학교(장애인학교), 재해로 피해를 입은 학교, 아시아의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NPO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에 사용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벨마크교육조성재단 홈페이지 참조.

¹⁰⁹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에서는 벨 마크 수집을 시작한 1976년부터 2001년까지 총액 70만 엔에 상당하는 학용품과 비품을 구입하였다.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会, 2001, p. 151.

¹¹⁰ 卞喜載・全哲男, 1988, p. 96.

및 클럽 활동 지원 비용을 마련했으며, 학생들에게 도서관과 음료 배포까지 진행하였다¹¹¹.

또한 벨마크 수집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각지 조선학교 중에서도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의 활동은 벨마크 운동의 운영 모체인 교육보조금 재단에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6년에 ‘벨마크 소식 콩쿠르’에서 가작을 수상한 것이다. 심사 대상이 된 어머니회 통신의 한 가지를 참조해 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랑 운동”이라고 크게 쓰여져 있었다. 또한 활동 중에는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이하 청상회) 청년 동포들이 사용한 잉크 카트리지를 반입해 주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벨마크 활동의 주최는 어머니회이며 학교 내의 활동이기는 하나, 총련 산하 여러 기관과의 연계도 보인다. 또한 2017년에는 치마조선초중급학교가 4월 10일 ‘벨마크신문’에 2017년 1월 특히 많은 벨마크를 수집한 우수한 학교로 게재되었다.

3. 계발 활동

어머니회는 오래 전부터 어머니들의 자신에 대한 조선인과 재일조선인로서의 의식 강화 및 교육을 실시해 왔다.

첫째, 여성동맹 주최로 각 학교의 어머니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어머니 대회는 특히 초창기에 어머니들에게 조국 지향의 계몽 활동의 일종으로 역할했다. 예를 들어, 1962년에 니가타에서 열린 제1회 대회는 1961년

¹¹¹ 『月刊イオ』 13, 1997, pp. 18-19.

북한의 여성동맹이 평양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어머니대회를 계승하고 있다. 북한 어머니대회는 김일성에 연설에서 드러나듯 ‘자녀 교육에서의 어머니의 임무’가 강조되었다¹¹². 현재 어머니대회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널리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변화를 볼 수 있으나¹¹³, 계발 활동의 측면이 여전히 강하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여성동맹 주최로 열린 제9회중앙어머니대회는 학교 어머니회 관계자와 지역의 ‘엄마와 어린이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참가했는데, 여성동맹 위원장이 “학교의 어머니회 활동을 비롯해서 특히 민족 교육의 권리를 지키고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고 했으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각 지역에서 어머니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육아와 민족 교육의 강화 및 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성과를 내자”고 호소하였다¹¹⁴.

둘째, 조국 방문 사업도 어머니회의 계발 활동의 일환이다. 1998년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렸을 때는 여성동맹에서 33명이 참가하였다. 1998년의 시점에서이 33명 중에 학교 어머니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어머니들이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2005

¹¹² 여성동맹 주최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김일성은 ‘자녀 교육의 어머니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진행하여 “가정 교육에서 어머니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책임이 무거운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도 “나쁜 시 어머니라도 견디고 섬겨야 한다”, “방탕한 남편도 꾸준히 교화시켜야 한다”,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노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자녀교육이 소홀해지는 것은 혁명 정신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瀬地山角, 『東アジアの家父長制 ジェンダーの比較社会学』(東京:勁草書房, 1996), pp. 289-290.

¹¹³ 『月刊イオ』 159 (2009 : 42-43)

¹¹⁴ 『朝鮮新報』, 2012년 9월 10일.

년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 2012년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때 여성동맹 방문단에는 학교 어머니회 임원이 포함되어 있었다¹¹⁵. 조국 방문은 어머니회에 소속하는 어머니들의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어머니회가 주최한 사업은 아니지만, 어머니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동맹 사업에서 조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어머니회에서 조국에 파견된 어머니들이 일본에 돌아온 후에 학교 어머니회에서 조국의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다른 어머니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 방문 사업도 어머니대회와 마찬가지로 주최가 여성동맹이며, 어머니회는 어디까지나 참여하는 입장에 서 있는 위치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각 학교 어머니회에서도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조선학교 어머니회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머니들의 의식향상을 촉구하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머니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어머니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2016년에는 1인연극 ‘자이니치 바이탈체크’¹¹⁶를 상연하였으며, 2017년에는 중군위안부를 주제로 한 한국영화 ‘귀향’을 감상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조선대학교에서 교수를 모셔 재일동포의 생활과 입장을 조선

¹¹⁵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2017, p. 68.

¹¹⁶ 캐치 카페는 “~우리 마음에는 그 강렬한 할머니의 모습이 영원히 살아있다~”이며, 극에서는 재일조선인의 100년 역사를 보여준다. 각 조선학교는 물론이며 각지 여성동맹 지부에서도 상연되었다.

반도 정세와 함께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어머니회 주최로 영화 감상회와 강연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쿄 조선중고급학교는 2012년에 조고 복싱부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보 복싱부’ 영화 감상회가 행해졌으며¹¹⁷, 2014년에는 어머니회 주최 강연회가 열려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어머니회 OG, 학생, 동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¹¹⁸. 다만, 현재 어머니회 주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세미나와 영화 감상회가 각 학교에서 정식으로 어느 시기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4. 공동 작업

어머니회는 동창회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동 작업을 한다. 이는 바로 구성원들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조선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 재일동포 어머니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중에는 옛날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람들이나 직접 알고 있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B 씨에 따르면 사이타마조선 초중급학교 도쿄조선고급학교는 이전에 학년 당 400명이나 학생이 재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같은 학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낯선 얼굴도 많긴 하지만 ‘동급생’은 확실히 주변에 존재한다. 이름이나 얼굴을 잘 몰라도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 어머니들이 어머니회를 통하여 서로 얼굴을 보게 되어서 그 때 당시에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

¹¹⁷ 『朝鮮新報』, 2016년 2월 2일.

¹¹⁸ 『朝鮮新報』, 2014년 1월 21일.

이 밝혀지면 대화가 활발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조선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본인도 조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라서 재일조선인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의외로 좁다. 실제로 아이가 같은 학년에 재적하는 어머니들 중에 중학교 때 담임 교사와 그 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은 서로를 ‘이름+언니’ 등 편하게 부르며¹¹⁹, 학교 안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밖에서도 자주 만나기도 한다.

어머니회의 활동의 대부분은 공동 작업이며, 어머니들은 바쁜 와중에서도 사적인 시간을 내어 학교에 모인다. B 씨에 의하면 “예전에는 전업 주부가 많았지만, 지금은 90%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하며, 어머니들은 자녀의 배웅과 마중, 도시락 만들기 등 늘 많은 일에 쫓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짬짬이 어머니회에 참여하고 있다. 어머니회는 학교의 대부분 행사에 참여하는 데다가 그 준비와 일상적인 회의가 매우 많다. 바쁘면서도 어머니회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는가. 또한 인간 관계에 혼란을 느끼거나 어머니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사이타마 학교의 어머니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가노 학교에 있었을 때는 거의 날마다 학교에 가서 벨마크를 자르거나 테트라팩을 찌부러뜨리거나 선생님한테 뭔가 해드리거나... 사이타마는 편한데, 마음에 구멍이 뻥 났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¹¹⁹ 山本, 2012, pp. 156-157.

모자가정이고 일을 쉬게 되면 힘드니까 쉴 틈 없이 일주일에 7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인 한데 일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럴 때 어머니회 회장을 맡게 되어 학교로 올 기회가 많아졌어요. 어머니회 활동을 위해서 일을 빠져야 할 때도 좀 있지만 생활이 알차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일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 (B 씨)

“수첩 만들기 등은 학교에서 하는데 일이 있는 어머니들에게 일정을 맞추어서 해요. 아마 하고 싶지 않는 어머니들은 없을 거고요. 어머니회 활동이 휴식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회는 ‘교류의 장’ 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저도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밖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가끔 학교에 와서, 얘기를 해서…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A 씨)

어머니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학교에 가서 어머니회에서 다른 어머니들과의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회 내부에서 서클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예를 들어, 도쿄조선제3초급학교는 2017년 9월 어머니회에서 ‘핸드메이드부’를 결성하여 두 달에 한 번 교실을 열고 있다. 회원은 고정제가 아니라 교실마다 흥미를 가진 어머니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지금까지

지 리스 및 장식 등 인테리어와 미스히키 만들기 등을 실시해 왔다¹²⁰. 어머니들은 어머니회의 활동이 자주 있어도 공동 작업 시간을 확보하고 어머니회에 참여하는 시간을 매일 염출하고 있는 것이다.

5. 학교 행사 보조

어머니회는 학교 행사를 보조한다. 학교 운영비를 염출하기 위한 자금 모으기 중 판매 활동도 학교 행사에서 행해지나, 그것과는 별도로 어머니회가 아니라 조선학교가 주최하는 행사 때 어머니회가 그 운영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매년 학교 행사인 ‘저학년 캠프’에서 식사 준비 등을 도와준다. 이것은 초등부 1~3학년 아이들이 여름에 학교에서 캠프를 하는 것인데, 어머니회가 카레를 만들곤 한다. 또한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유치부에서는 가장 연상인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일본 사람들 앞에서 농악을 추는 ‘대외 사업’을 매년 실시하여, 어머니회는 부침개와 김밥 등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한 매점을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유아들의 춤의 진행을 보조한다.

“어머니도 선생님도 농악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죠. 유치원생들이 대외 사업에 끌려 춤 추는 모습에는 눈물이 나왔어요. 익숙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대단한 일’

¹²⁰ 동경조선제3초급학교 블로그에 핸드메이드부에 활동 일정과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그냥 춤 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의 거리를 줄이거나 우리 존재를 어필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춤추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게 좋고, 서로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유치원생까지 그런 데에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슬픔이 있어요.” (C 씨)

C 씨는 몇 년 전 농악 행사에서 유치부 교사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조선 학교와 아이들이 농악을 추는 의미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이 음악을 틀어 행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행위에 의문을 느껴서 일단 정리한 뒤 다시 시작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행사의 주최와 주도권은 어머니회가 아니라 학교 쪽에 있으며, 어머니회는 행사에 대한 어머니 개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디까지나 학교를 보조하는 역할로 행사에 동원되고 있다. 어머니회에 이러한 일이 맡겨 있다는 것은 조선 학교의 교직원의 압도적인 인원 부족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6. 학교 행사 주최

조선 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어머니회 자체 행사를 주최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머니회 급식’이다. 어머니회 급식의 정확한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에서는 1970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어머니회에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활동 중 하나

이다¹²¹. 원래 조선학교에는 급식 제도가 없으며,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머니회 급식은 어머니회가 학생들의 급식을 당번제로 담당하고 제공하는 것이며, 많은 학교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활동이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합동으로 어머니회 급식이 실시된다. 메뉴는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데, 카레라이스는 호평을 받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한다¹²². 또한 니가타 학교에서는 1년에 세 번 민족 음식을 어머니회 급식으로 제공하였다¹²³.

어머니회 급식을 실시 할 때 메뉴 선정, 재료의 조달부터 조리, 담기까지 모두 어머니들이 맡는다. 많은 식사를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나, 어머니회 급식에 대한 어머니들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C 씨에 따르면 어머니회 급식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어머니들이 도시락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고마움’은 물론 아이들이 모두가 같은 것을 함께 먹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어머니회는 “엄마들이 만든 것”을 먹는 아이들의 기쁨을 의식해서 수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한다.

¹²¹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에는 원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와 예산 관련 문제로 인하여 급식이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등을 주문하는데, “1년에 두 세 번 정도라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혀주고 싶다”는 어머니들의 의사에 따라 ‘하루 급식’이 개시되었다.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会, 2007, p.151. 현재도 조선학교에는 기본적으로 급식이 없으며, 각 학교 어머니회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참조해 보면 어머니회 급식에 대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¹²² 4년 전까지는 유치부에서 일주일에 두 번 실시하고 있었다.

¹²³ 평소 어머니회 급식에서는 전용 식당에서 어머니들이 만드는 보통 메뉴가 제공되었다.

그 외에도 어머니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급식이외에도 과외 레크리에이션 목적 행사 및 교내 미화 활동을 어머니회가 기획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유치부는 어머니회 주최의 행사가 많으며, 생일 파티와 떡치기 대회를 어머니회의 기획 및 주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의 청소와 관련하여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는 2017년에 교내 커튼을 모두 씻어 보수했으며, 체육관 대청소도 실시하였다. 이들은 학교의 지시에 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머니회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IV. 어머니회의 역할

1. 여성동맹의 활동 범위 확대

1) 여성동맹이 어머니회에 미치는 조직적 영향력

어머니회는 여성동맹의 견고한 조직 기반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회는 학교의 조직이며, 여성동맹은 조선학교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조직이지만 모두 총련을 운영 모체로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여성동맹이 어머니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예로서 어머니회의 ‘어머니’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어머니’이다. 이는 사전적인 의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아이가 조선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머니’이다. OG회로 대표되듯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 하는 것과 동시에 어머니도 어머니회를 형식적으로 ‘졸업’ 하지만, 실제로는 졸업 후 몇 년 동안 어머니회의 OG로 학교에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여성동맹에 종사하는 모든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까지 확대되는 개념이다. 즉, ‘어머니’는 광의성이 가지는 단어이며,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어머니’가 가리키는 의미는 현재 조선학교에서 다니는 아이를 가지는 어머니라는 범주를 벗어난 어머니이다.

실제로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현역으로 종사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OG의 어머니들은 물론 학교 행사에 도와 주러 오는 여성동맹 여성들도 포함하여 ‘어머니’라고 부른다. 자신의 부모 세대니 그것보다 고령인 할

머니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어머니’, 자신의 친모가 아닌 사람들도 ‘어머니’이다. 따라서 어머니회 내부는 실질적으로 두 세대의 어머니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즉, 어머니 자신이 여성동맹과 연결을 유지하는 한 어머니 개인과 학교의 어머니회와의 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며, 한 어머니가 어머니회에 종사하는 세월의 길이가 눈에 띈다.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평생 관계하는 조직이다.

(1) 어머니회의 요직 결정

여성동맹이 어머니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머니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어머니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조선학교 어머니회를 탄생시킨 것은 1960년대에 여성동맹에 등장한 글을 쓰는 줄 아는 기혼 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 주체였다는 설명이 있다¹²⁴. 즉, 여성동맹 일꾼들이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다.

1997년 시점에서 치바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의 요직에는 재학생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성동맹에서 온 어머니가 섞여 있었다. 부회장이 되는 조건은 반드시 재학생의 어머니가 아니어도 가능했으며, 적어도 그 중에서 한 명은 전년도에 초중급학교를 졸업한 아이의 어머니였다¹²⁵. 여기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었던 어머니가 여성동맹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

¹²⁴ 洪ジョンウン, 2015, p. 8.

¹²⁵ 당시 회장은 중급부 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1년 임기로 맡고 있었던 한편, 부회장은 2년 임기였으며 어머니들 총 8명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月刊イオ』 13, 1997, pp. 18-19.

었는지, 아이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을 때부터 어머니회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으나, 여성동맹이 학교 어머니회에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보냄으로써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사이타마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여성동맹의 산하에 있으나, 현재 어머니회 회장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동맹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2) 여성동맹의 어머니회 행사 지원

조선학교 행사에는 어머니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여성동맹에서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 사람들이 온다. 이는 “김치를 잘 만드시는 어머니가 계시면 한 통에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걸 판매하라고 제공해주시거나” (B 씨)라는 말과 “사이타마 학교의 안녕페스타¹²⁶는 어머니회, 녀맹이라는 구별이 안 될 정도 다같이 활동한다” (A 씨)는 말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또한 여기에서 어머니회 어머니들이 말하는 “어머니”란 여성동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가리킨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도 있다. 예를 들어 E 씨에 따르면, 니가타 조선초중급학교는 학교에서 가장 큰 축제인 ‘미래페스티벌’ 때 “여성동맹에

¹²⁶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및 유치부에서 매년 행해지는 ‘안녕페스타’는 사이타마 학교에서 규모가 가장 큰 행사이다. 4년 전까지는 어머니회 주최의 ‘어머니회 바자’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규모를 더 넓혀서 대외 사업에도 주력한다는 목적으로 주최가 총련 사이타마현 본부로 바뀌었으며 명칭도 ‘안녕 페스타’가 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경 후에도 어머니회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 어머니회가 롤케이크와 김밥 등을 만들어 본 적도 있으며 매년 다양한 기획이 실현되어 왔다.

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들이 와 주셔서 김밥이나 떡볶이를 판매해주셨고, 그 수익을 어머니회에 기부해 주셨다.” 라고 한다. 또한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여성동맹 안에 있는 어머니들의 무용부가 어머니회에 기부를 해주는 일도 있다고 한다.

(3)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의 공동 작업

국가나 지자체, 유엔 등에 대한 요청 활동 때도 어머니회가 여성동맹과 협력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대표단이 유엔에 나갔을 때 대표단의 직함은 전국조선학교어머니회연락회 대표,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어머니회 대표, 군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오사카조선학교어머니연락회 회장, 도쿄조선제6초중급학교 학부모 대표 겸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부장이라는 5명이었으며, 여성동맹의 직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전에 실시된 ‘우리의 꿈, 우리 마음 프로젝트’는 군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가 여성동맹 군마현 본부, 군마조선초중급학교와 협력하여 종이학의 제작을 호소했다. 제네바에 종이학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먼저 발안한 것은 군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였으나, 그 후에 여성동맹의 자녀부장의 한 마디로 인하여 여성동맹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매년 어머니회에서 실시되었던 세미나도 여성동맹과의 공동 개최로 변경된 것이다¹²⁷.

¹²⁷ 『朝鮮学校のある風景』 19, 2013, pp. 19—20.

또한, 최근에는 2019년 1월에 오사카 조선학교 어머니회 대표들이 참의원의원회관에서 문부과학성의 담당자들과 면담하였다. 거기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유엔의 각종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고교 무상화 및 취학 지원금 지급 제도를 조선학교에 보장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10개 조선학교 어머니회와 여성동맹 본부 및 지부로 ‘오사카부 어머니연락회’가 구성되었다¹²⁸.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여성동맹은 학교 밖의 조직이며, 어머니회는 학교 안의 조직이라고 해도 활동의 실태를 보면 여성동맹과 어머니회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2) 여성동맹으로부터 어머니회의 자율성

이러한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의 관계에 대하여, 물리뉴 (1998)에 의한 여성 주체의 조직의 자율성에 관한 이론에 따라 분석한다면, 어머니회와 여성동맹 사이에는 ‘지시 동원’ (directed mobilization)과 ‘연계적 결합’ (associated linkage)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지시 동원’은 권위 또는 이니셔티브가 외부 조직에 있으며, 여성 조직이 정부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한 상위 조직의 통제하에 있다는 유형이다. 이러한 여성 조직은 상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어머니회는 여성동맹이 주최하는 행사에 동원되거나 어머니회 회장 결정 시에 여성동맹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머니회의 활동에 있어서는 학교 외 조직인 여성동맹이 어머니회를 ‘관

¹²⁸ 『朝鮮新報』, 2019년 1월 22일.

할’ 하는 장면이 많이 보인다. 즉, 여성동맹과 어머니회와의 관계는 어머니회를 매개로 여성동맹의 어머니들이 학교의 영역까지 침입하여 어머니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사이타마와 학교 행사 때 롤케이크나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여성동맹의 연상 어머니들이 젊은 어머니들에게 지도를 해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2018년도에 어머니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B 씨의 “어머니회는 여성동맹에 늘 문의를 드린다”는 발언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즉, 이 ‘지시 동원’은 어머니회를 매개로 여성동맹 어머니들이 학교의 영역까지 동원되어서 어머니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어머니회는 항상 여성동맹의 전체 지도 체제 하에 놓여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어머니회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다른 정치 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동맹과 ‘연계적 결합’(associated linkage)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어머니회에 회칙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활동 방침은 대체로 각 학교의 어머니회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동맹 쪽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자발적으로 정책을 만든다”는 E 씨의 발언에 보이는 것과 같이, 어머니회의 자율성은 다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여성동맹이 어머니회에 관여하는 의도

그러면 여성동맹이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회에 간섭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회와 여성동맹, 더 나아가서는 그 모체인

총련과의 조직 간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총련 아래의 여성동맹의 힘이 학교의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여성동맹 자체가 조직 구조적으로 총련 하에서의 자율성이 낮기 때문에¹²⁹ 여성동맹이 어머니회에 참여하는 것은 총련의 사상을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조선학교라는 공적 공간에 여성 활동가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계기”를 만들며, 둘째로 “여성동맹의 활동가는 조선학교 어머니회와의 연계를 강화시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민족 운동에서의 여성 활동 과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¹³⁰. 이상의 관점은 홍정은(2015)이 1960년대 여성동맹과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연계에 주목하면서 어머니회가 여성 주체에 의한 민족 운동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분류한 것이지만, 둘 다 오늘날에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어머니회가 활동할 때 여성동맹의 ‘어머니’ 들도 현역의 ‘어머니’ 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 또한 여성동맹 활동가들이 일상적으로 총련의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넓은 의미로서의 공공 공간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조선학교 어머니회를 매체로 하여 여성동맹의 구성원 자신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여성동맹과 총련의 방침을 조선학교 커뮤니티에 침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¹²⁹ 徐阿貴, 2012, pp. 65-66.

¹³⁰ 洪ジョンウン (2015) 은 어머니회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하여 “조선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살려서 여성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육아 중인 재일조선인 여성도 활동에 참여시킬 가능성”을 여는 것에 대하여 언급했다. 洪ジョンウン, 2015, p. 10.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술하고자 한다.

2. 어머니들의 정체성 유지와 재구축

1) 어머니들 자신의 의식 통일

어머니회는 어머니들의 조선인이나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해준 의식을 재구성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회에서는 그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계발 활동을 실시해 왔다. 박삼석(朴三石, 1997)은 조선학교를 “조선인 어머니라는 실감이 나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면서 스스로도 민족적인 것을 육성하여 조선인으로 성장하는데¹³¹ 이는 어머니회에서 개최되는 정체성의 갈등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시도를 통하여 보다 확실해진다.

단, 어머니회의 계발 활동의 목적이나 요구되는 어머니의 모습에 관해서는 그 정책이나 사상에 총련과 본국과의 관계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가 보인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당시 조선학교 공개 수업 날에는 어머니회에 의한 30분 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어머니회가 학부모들을 향하여 성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당시 어머니회는 여성동맹 일군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학부모 참관날에는 어머니회가 소년단의 “붉은 스카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붉은 스카프’란 ‘항일 빨치산 대원들의 빨간 피’를 의미한다. 따라서 1960년대 어머니회의 어머

¹³¹ 朴三石, 『日本のなかの朝鮮学校 21世紀にはばたく』(東京:朝鮮青年社, 1997), p. 45.

니 역할은 본국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¹³². 계몽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민족 의식의 유지와 민족 교육에 대한 관심 증진이었다고 해도, 당시 어머니회가 수행하고 있었던 계몽 활동에서 강조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명확한 조국 지향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일본에 정주하는 재일조선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외국민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현재 어머니회의 활동을 보면 본국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전면적으로 강하게 계승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체성의 재구축에 초점을 맞춘 노력이 많으며, 이는 재일조선인 3세가 주류가 된 요즘에 더 활발해진 것 같다. 그것은 재일조선인의 세대 교체에 따른 의식의 변화와 다양화에 의거한다. E 씨에 따르면 이전에는 어머니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조선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에 대한 열의가 강했으나 현재는 어머니들의 조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면서 일본 학교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거나 조선학교의 비싼 수업료 때문에 민족 교육을 단념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두고 E 씨는 “편한 길이 생겼다”고 경종을 울린다.

“여기(인터뷰를 진행한 장소)에 있는 어머니들은 확실한 마음이 있어서 여기로 와 준 거고, 지금 했던 이야기도 잘 통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어머니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그렇지는 않고 의식 차이도 크네요.” (B 씨)

¹³² 洪ジョンウン, 2015, pp. 9-10.

“(마음이) 흔들리거나 완전히 ‘저는 우리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빠가...라는 이유로 보내고 있어요’, ‘몇 년 지나고 막내가 학교에 입학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다른 자녀들도) 일본 학교에 보내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어머니들도 있고” (C 씨)

즉, 조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의식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들의 민족 의식이 희박해지고 부분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어머니회는 약화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조국 지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던 1960년대 어머니회에서 목표로 했던 것과 다르다. 현재 어머니회에서 중시되는 정체성은 귀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일본에 정주하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기 규정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자녀들의 진로 결정

어머니들의 정체성 확립은 결국 아이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민족 교육에 대한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바로 진로 선택이다. 어머니회가 재일조선인 자녀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은 여성동맹의 기본 방침¹³³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어머니회가 재일조선인 ‘아이들’

¹³³ 여성동맹 홈페이지에 의하면, 여성동맹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민족의 마음을 계승하여 지키고 키우는 것’ 을 컨셉으로 재일동포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의 진로 선택 방향을 정한다고 할 때 가리키는 ‘아이들’이란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들과 일본의 학교에 다니는 재일 아이들까지도 포함된다.

특히 오늘날에는 현 시점에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주변 환경이나 다양한 정보와 접촉함으로써 일본 사회나 일본 학교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 씨는 본인의 형제나 친척 중에 아이를 일본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현재 중학생인 아이에 대하여 “우리 학교는 즐거운데,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학교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단, 그 한편으로는 현재 조선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진학하고 싶은 마음도 보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 사이에도 가정 환경 및 진로 선택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니회 어머니들은 “우리 학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부모를 나이프로 찔러 죽이거나 장래적으로 아이에게 학대하거나 그런 인간이 되진 않을 거예요. 저도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긴 하지만 지금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긴 장래, 어떤 인간으로 성장할지를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일단 학생시절에 집에 틀어박히는 일은 없을 거고 학교에

문화를 배우면서 정체성을 키우는 것과 여성과 아동의 권리, 특히 민족 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동포 여성의 요구에 맞춘 예술, 스포츠 등의 서클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없는 자신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학교로 보내면 돈이 들고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항상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봐요” (C 씨)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일본 학교로 가라’ 라고 하면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돈이 없는 거라면...’ 이라고 할 수 없이 단념할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크죠. 어머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흔들리게 돼요. 이러한 의미의 어머니회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전후의 한복판을 살아왔던 어머니들은 조선인으로 지내와서 마음은 확고해요. 근데 지금은 재정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미디어에 지지 않을 만한 강한 마음과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를 생각해봐야 해요. ” (B 씨)

이상에서 자녀의 진로 선택에 대하여 가정에서 어머니가 맡는 역할은 아버지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의 젠더를 생각할 때 가정 교육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전통 문화에 따르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재일조선인 가정 교육도 마찬가지이다¹³⁴. 조선학교에 자녀를 계속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힘이 강고

¹³⁴ 李仁子(2005)는 이민의 젠더를 생각할 때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한 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부모들의 기대가 낮아서 억압을 느끼지 않음

해야 하며,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회에서는 어머니들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 네트워킹 및 정보 교환

1) 네트워킹

어머니회는 어머니들이 공동 작업을 통하여 네트워킹을 하며 어머니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실제로 어머니회가 결성된 배경 중 하나로 어머니들끼리의 네트워크 형성을 드는 학교도 있다. 다음 발언은 도우노우조선초중급학교의 초기 어머니회 회장의 발언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암중모색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넣어 버리고나서 수업 참관이나 운동회에도 오지 않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상태를 개선하고 싶다는 이유로 친목회도 겸해서 (어머니회를) 시작했어요.”

도우노우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는 1978년에 결성되었다. 어머니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는 문화 축제와 캠프 등의 행사 비용의 보조와 복사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 교무에 필요한 도구의 기부 등을 실시하게 되었으나¹³⁵, 어머니회를 설립하게 된 원래 동기는 ‘친목회’로

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적한다. 李仁子(田中・中谷編), 2005, p. 297.

¹³⁵ 卞喜載・全哲男, 1988, pp. 92-95.

서의 기능을 기대했다는 것이었으며 어머니회 결성 이후 한동안은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각 학교 어머니회 간의 네트워킹도 있다. 조선학교는 다른 조선학교 학생들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강고하다. 학생들은 부활동이나 학교 방문 등 교류 기회를 통하여 다른 도도부현에 있는 조선학교 관계자와 만날 기회도 많으며, 학생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간의 유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니회 수준에서도 대대적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와카야마 폭우 때 전국 어머니회가 와카야마 초중급학교를 지원하였다. 원래 와카야마 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재정을 위하여 와카야마의 특산물인 우메보시를 판매하고 있었다. 와카야마 폭우 때는 와카야마 학교 어머니회가 스스로 우메보시를 구입함으로써 와카야마 학교를 지원하자는 운동을 시작하여 전국 어머니회에 연락을 하였다. 그 외에도 니가타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어머니회와의 교류가 일상적으로 자주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E 씨에 따르면 이바라키조선초중급학교 운동회 때는 니가타에서 어머니들이 도와주러 가곤 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후쿠시마 조선초중급학교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을 때는 후쿠시마 및 니가타 학교의 어머니회가 같이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후쿠시마 학교의 학생들을 니가타로 불러 기숙사에 살게 해주면서 학생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어머니회가 학교와 학교를 연결시키는 데에 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2) 정보 교환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구성원들은 재일 어머니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 고민 등이 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그들은 다른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해야 해결된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의 대표적인 예가 자녀의 진학 문제와 제사에 관한 일이다. 다음은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의 어머니들 두 명의 발언이다.

“어머니회는 ‘보통 마마토모 + α ’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에도 많은 서클이 있지만 재일동포 마마토모에는 ‘+ α ’ 가 꼭 있어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알게 되어서 ‘+ α ’ 의 고민이나 궁금한 것,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걸 자이니치가 아닌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C 씨)

“예를 들어 아이를 일본 보육원에 보냈는데,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못 했네요. 자이니치라서 상담할 수 있는 일이나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회예요. ‘나는 여기다’ 라는 안심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당당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D 씨)

특히 유치원, 보육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어머니로서 친한 사람들을 일본어로 자주 ‘마마토모(ママ友, 엄마 + 친구)라고 한다. 어머니들 중에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거나 일본 친구들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재일조선인으로서의 마음을 토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입장을 공유하는 어머니야말로 최선의 상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동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모임과 동아리 활동도 총련계 재일조선인이면서 기혼인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이지만 같은 학교에서 또래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만이 모이는 어머니회에서 어머니들은 정보 수집과 공유를 더 쉽게 할 수 있다.

4. 민족 교육의 유지

여기까지 어머니회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여성동맹의 활동 범위 확장, 어머니들의 정체성 유지와 재구축, 어머니들 간의 네트워킹 및 정보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이 세 가지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조선학교 및 민족 교육의 유지에 집약된다. 조선 학교의 학부모 조직으로는 어머니회 외에 교육회와 아버지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조직은 각각 담당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회는 조선학교의 존속과 민족 교육 유지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이 요구된다.

어머니회가 다른 학부모 조직에 비하여 민족 교육 유지에 주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인 조직 구조에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회는 여성동맹의 관할 하에 놓여 있으며, 총련 본부와 학교 사이에 여성동맹이라는 매개 조직이 있음으로써 총련 본부의 손이 닿기 쉽다. 여

성동맹은 총련 산하 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기혼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단체인 것과 동시에 그 설립 당초부터 활동 이념에 재일 조선인의 자녀에 대한 민족 교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회가 민족 교육의 유지에 있어서 다른 학부모 모임보다 활동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민족 교육에 관한 논의의 장인 어머니 대회의 계속 등 면밀한 조직 기반 체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회가 민족 교육의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관련하여 어머니회는 조선학교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과 취학 연령 전 자녀가 있는 재일조선인 어머니들도 총련의 민족 교육에 포함시켜서 ‘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취학 연령 전 아동이나 일본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모여서 교육 문제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클 ‘복숭아 클럽’(오카야마)과 ‘환희’(시코쿠)가 설립되었다¹³⁶. 이것은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참여하여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며 현지 조선학교에 더 많은 아이를 들어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동아리였다. 학교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이 협동하여 설치된 단체가 아닐까 추측된다. 다음은 사이타마 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의 발언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어날 때부터 어머니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취학 전 아이들의 씨클도 있기는 한데, 0살부터 아이를 키우면

¹³⁶ 『月刊イオ』 3, 1996, p. 18.

서 어머니회와 접촉할 기회가 꽤 많아요. 유치원의 이벤트에 데리고
가거나 운동회에서 어머니회의 활동을 보거나... 아이가 학교에 다니
기 전부터 학교 어머니회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기회가 많어요. ”

(D 씨)

“어머니회가 잘 되어있고 영향력이 있는 학교일수록 학생수가 많
아요. 어머니의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고등학교는 몇 개 중
급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서 다니는데, 그 때 당시 군마, 니가타, 이
바라키, 토치기 중에서 군마의 인원수가 가장 많았거든요. 군마 어
머니회의 존재감은 그 만큼 컸네요. 어머니회의 ‘힘이 강하다’ 라
는 것은 활동이 활발하거나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고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그 학교에 입학 시켜도 괜찮겠다는 잠
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C 씨)

아이가 취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어머니들도 학교의 어머니회가 조선
학교 내외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머니회와
관련된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조선학교의 민족 교육의 장점을 전달하여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조선학교에 입학 시키게 하
도록 장려한다.

그럼 민족 교육에 주력하는 어머니회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
니들을 중심으로 한 재일조선인 여성이 민족 교육과 민족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선학교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예

를 들면, 치마 저고리 교복을 도입하고 있는 조선학교가 여러 개 있으나, 이러한 학교에서 민족 의상 착용이 필수가 되어 있는 것은 여학생뿐이다. 여성에게만 ‘민족’을 강요하는 것은 남성이 “근대화되어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는” 반면, 여성은 “민족의 현재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적인 남녀 역할 분업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¹³⁷. “치마 저고리 교복, 즉 교복의 젠더 차이는 이해하기 쉬운 ‘현재적 커리큘럼’”¹³⁸이라고 하는데, 민족성에 관련된 부분이 특히 여성에게 요구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¹³⁷ 치마 저고리에는 ‘고정적 남녀 역할 분업관’이 시사되어 있으며 조선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젠더에 의한 역할 분담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단, 특히 치마 저고리에 의하여 “조선학교 여성은 ‘민족 경계’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남성보다 더 강한 ‘민족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宋基燦, 2012, p. 157.

¹³⁸ 韓東賢, 『チマチョゴリ制服の民族誌 その誕生と朝鮮学校の女性たち』(東京: 双風舎, 2006), p. 214.

V. 어머니회에서 보이는 젠더 구조

1. 학부모 조직의 젠더 역할

여기까지 어머니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조선학교 학부모 조직에는 분업 체제가 보인다. 어머니회가 민족 교육의 유지를 중심으로 다루는 한편 교육회와 아버지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회의 활동은 교육회와 아버지회와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1) 교육회

교육회는 총련 산하 단체이면서 각 학교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학교 단위의 조직이며, 학부모, 동창 찬동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가리킨다¹³⁹. 2013년 11월에 도쿄도가 발표한 『조선 학교 조사 보고서』(朝鮮學校調査報告書)에 따르면 교육회에 관하여 조선학교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회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이며, 학부모 대표 등이 교장, 교원과 토의하고 발언하는 결재권이 없는 이사회와 같은 것이다. 재일조선인 사회 등에 기부를 호소하거나 재정면에서도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임 사무원이 있으며 학교의 사무 부문

¹³⁹ 板垣, 2013, pp. 161-162.

을 담당하는데 회계 및 학교 버스 운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⁴⁰

위의 설명 중 ‘결재권이 없는 이사회’에 대하여 보충을 한다면, 이는 조선학교에서 결재권을 담당하는 공식 기관이 이사회이기 때문이다¹⁴¹. 문부과학성에 의한 조선고등학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조선학교가 모두 유일한 의사 결정 기구는 이사회라고 답변을 하였다¹⁴².

그러나 이사회의 개최 빈도와 권력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회가 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공식적인 이사회는 거의 개최되지 않았고 수억 엔의 채무 부담을 수반하는 토지 구입의 경우에도 개최되지 않았다”라고 하며, 오히려 “학교의 일상적인 관리 운영은 ‘교육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학교 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아

¹⁴⁰ 도쿄도가 2013년에 작성한 조선학교 조사 보고서에서 재인용. 東京都, 2013, p. 18

¹⁴¹ 전국 조선학교는 각 도도부현 지사가 인가한 준학교법인인 ‘조선학원’이 운영한다. 그리고 학교 인사 결정권은 조선학원의 이사회에 있다. 예를 들어 각 학교에서 결원 보충이 필요할 때 그 지역 내 조선학교의 교사들의 현상과 타 지역의 조선학원의 상황을 조사하는데, 그 역할을 조선학원이 중심으로 맡고 있다. 板垣, 2013, pp. 161-162.

¹⁴² 문부과학성(2012)에 따르면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제 6회)의 회의 자료 중 『자료1 고교 무상화에 관한 조선고급학교의 심사 상황(3월 26일 현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 “일부 보도에서는 조선학교가 실질적으로 총련의 ‘직할 조직’인 교육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교육회는 학부모, 학교 졸업생, 기타 각 지역의 학교 지원자 대표들로 이루어지면서 학교 기부금 모집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조직이며 교육회가 학교 운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文部科学省,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の支給に関する審査会(第6回平成24年3月26日)会議資料』(2012).

이치에서는 “학교의 지출에 관련된 차입을 ‘교육회’ 명의로 실시하고 응급 상황(교원에게 늦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학교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회는 형식 상으로는 각 조선학교에서 학교 전체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기능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재정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2) 아버지회

아버지회는 어머니회와 교육회와 달리 아버지회만의 독자적인 활동이 적다. 아버지회를 가진 학교에서도 “어머니회가 당연히 훨씬 힘이 있다” 고 알려진다¹⁴³. 실제로 아버지회는 발족 및 해체 시의 자유와 활동의 유연성이 있으며, 활동이 단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버지들의 업무 수요에 따라 그 때마다 자발적으로 결성되어서 특정한 작업을 마친 후에 즉시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니가타 학교에서도 이전에 학교 안에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아버지회가 성립되었는데 정규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자연 소멸되었다고 한다.

“니가타 학교도 아버지회가 딱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없어져서 그 기억조차 없을 정도예요. (아버지회는) ‘어머니회가 있으니까 아버

¹⁴³ 어머니회의 ‘힘’에 대해서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대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사에는 일을 조절해도 참석하는 어머니들의 모습” 이 있다고 하며, “아버지들은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라는 기술이 있다. 『月刊イオ』 14, 1997, p. 12.

지회도 만들어보자’ 라는 이유로 결성된 것이 아닐까요. 근데 해보다가 ’ 못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E 씨)

물론 모든 학교 아버지회 활동과 조직이 단기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고베조선초중급학교와 교토조선초급학교 및 부속유치반처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머니회뿐만 아니라 아버지회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조선학교가 있거나¹⁴⁴, 치바조선초중급학교 홈페이지에 볼 수 있듯이 학교 연혁에 아버지회의 결성연도를 명확하게 기록한 학교도 있으며, 아버지회가 학교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아버지회 활동이 어머니회와 교육회에 비하여 활발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조직 기반이다. 아버지회는 분명히 조선학교에 설치 되어 있으며 조선학교 자체가 총련을 운영 모체로 하기 때문에 총련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아버지회 자체는 공식적으로 총련 산하에 놓여 있지 않다. 따라서 아버지회는 어머니회처럼 상위 조직의 제약을 받을 일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아버지회 결성 과정을 보면, 1996년에 들어 ‘하루 봉사’ 로 일요일에 학교 청소를 하거나 창립 기념 행사를 준비하다가 정식으로 아버지회로 출범하게 되었다. 원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아버지회를 조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아버지들이 모여서 단기 활동을 학교 내에서 반복하면서 아버지회라는 조직이 자주적

¹⁴⁴ 고베조선초중급학교 및 교토조선초급학교 • 부속유치반 홈페이지 참조.

으로 결성된 것이다¹⁴⁵. 따라서 아버지회의 조직 기반은 조선학교에 벗어날 수 없으며 조직으로서의 연속성과 인맥 역할에 관하여 어머니회 만큼의 지속성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아버지회는 어머니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영향력 때문에 자신들만의 일을 충분히 담당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아버지회는 각 학교 어머니회보다 훨씬 이후에 결성된 조직이며, 기존의 어머니회 옆에서 아버지들도 교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총련 커뮤니티 속의 젠더 관점에서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조직이기는 하나, 아버지회가 어머니회의 짝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어머니회가 원래 있었다는 전제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어머니회에 기대되는 역할과 담당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회는 고유의 역할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3) 어머니회의 그림자 노동

여기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들은 여성동맹과 총련이 중시하는 민족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데, 어머니회의 개별 활동을 개관하자면 학교를 밑에서 지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어머니회는 조선학교에서 무보수 배후자로 상당히 많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어머니회가 맡는 일은 모두 ‘무급 노동’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회는 바자회와 김치 판매를 비롯한 판매 활동, 모금 운동이나 벨마크 및 폐품 회수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기금 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나, 이들은 제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사랑운동”

¹⁴⁵ 『月刊イオ』 6, 1996, p. 77.

의 일환이다.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머니회의 활동에서 얻은 수익은 전액 학교 운영비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이 어머니들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일은 없다.

둘째, 어머니들의 임무는 무급 노동 중에서도 ‘그림자 노동’에 해당한다. 이반 일리치(1982)가 제창한 ‘그림자 노동’은 임금 노동과 상보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¹⁴⁶. 조선학교는 일본의 행정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교 무상화도 적용되지 않는 재정난 가운데 교직원 일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만으로는 행사 운영 등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 수 부족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의 인건비를 충분히 염출하기 어려운 학교도 존재한다. 그래서 어머니회에서는 본래라면 학교 교직원이 할 일을 대신 담당하거나 어머니회 기금 조성 수익으로 교직원의 급여를 충당한다.

따라서 어머니회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다. 어머니회가 모금 활동이나 행사 보조 및 주최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교무나 학무 관련 업무에 집중하여 월급을 받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예를 들자면 어머니회는 교직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래 교직원 자신이 실시하는 가사 영역에까지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회는 원래 교사의 도시락이나 야식을 마련하는 풍습이 있으며 예전에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어머니회에서 담당을 정해서 만들었다” (B 씨)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

¹⁴⁶ Ivan Illich, 1982, p. 207.

에 따라서는 교사의 도시락이나 식사를 만들어 주는 문화가 남아 있기도 한다.

“작은 학교인 만큼 가족 같은 관계성이 있어서 선생님들의 식사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전에 폭설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기숙사에 갇혀 있어서 식사를 못 하셨을 때, 저는 학교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밥을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 후에 다른 동포가 제설차를 가져와서 제설도 완료했구요.” (B 씨)

이반 일리치에 따르면 그림자 노동에는 “여성들이 집이나 아파트에서 하는 대부분의 가사”도 포함되나¹⁴⁷, 그림자 노동의 조건으로 반드시 노동의 장소가 가정이라고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금 노동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이 필요 조건이다. 따라서 어머니회는 교직원의 임금 노동을 보완하는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활동은 그림자 노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그림자 노동은 확실히 어머니회의 업무 영역이다. 교육회와 아버지회도 조선학교와 민족 교육의 유지라는 총련 전체의 목표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제4장에서 언급한 조선 학교의 학부모 조직의 분업 체제에

¹⁴⁷ Ivan Illich(1982)는 “여성들이 집이나 아파트에서 하는 대부분의 가사”를 그림자 노동의 한 가지 예로 언급하였으나, 그림자 노동은 반드시 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자 노동의 핵심은 “산업 사회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필연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노동”이며, “임금노동과 함께 생활의 자립과 자존을 빼앗기는 것”이다. Ivan Illich, 1982, pp.192-193. 즉 그림자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반드시 가정이 아니어도 된다.

서 볼 수 있다시피 어머니회 만큼 학교 운영을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 아버지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어머니들은 직장 생활과 집안일 등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학교에 다니며, 그림자 노동을 한다. 그럼 어머니회만 이러한 과도한 부담을 지고 학교의 막후 인물처럼 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총련 기존의 가부장적 구조에 기초한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다.

2. 가부장적 구조

1) 총련과 조선학교의 남녀별 조직

총련의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며 학교의 어머니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아귀(2012)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 조직이 가부장적 구조의 메타파인 것은 총련 산하 조직의 구조에 여실히 드러난다¹⁴⁸. 예를 들어 총련 산하 청상회는 남성만이 참여하는 단체인 반면, 여성동맹은 기혼 여성이 소속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조선학교에서 학부모 조직에 대해서도 각 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젠더 구조가 분명하다.

먼저 어머니회는 어머니만이 참여하며 아버지회는 아버지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남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회는 명목 상 남녀 혼합이며 어머니도 아버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이면서도 리더십은 남성 쪽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교육회는 청상회와의 연결도 보인다. 예를 들어, 시모노세키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학교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체육관을 건설했을 때 청상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그 건설위원

¹⁴⁸ 徐阿貴, 2012, pp. 70-71.

회의 사무 총장이었던 아버지가 교육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는 경위를 가진다¹⁴⁹.

따라서 교육회도 아버지회도 둘 다 남성 중심의 조직이며, 조선학교의 학부모 조직에는 총련 산하 조직과 마찬가지로 젠더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남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데에 있어서 조직 간 분업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머니회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조선학교의 학부모 조직 차원에서도 젠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학부모 조직 간의 가부장적 구조

남성 중심의 수직 구조는 조직 구조라는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실태에도 보인다. 어머니회는 남성 주체 조직인 교육회와 아버지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부장적 구조 하에서 남성에게 주도되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1) 어머니회와 교육회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회는 학교 전체의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행사 운영과 기금 모금, 서명 운동 등은 어머니회가 담당하는 반면, 교육회가 학교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어머니회는 교육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회가 벌어들인 수익의 행선

¹⁴⁹ 卞喜載・全哲男, 1988, pp. 87-88.

지는 확실히 학교이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돈은 학교 교육회에 기부되어서 수익의 사용 방법은 교육회에 일임된다. 때로는 “어머니회 어머니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학교 교육회가 하고 싶은 일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B 씨, C 씨)고 한다.

어머니회와 교육회는 모두 어머니가 가입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그 구성원에 중복성이 있어도 담당하는 활동과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며,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어머니회와 교육회 사이에 의견이 상충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회는 교육회에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회는 노동력을 제공하나, 의사결정에 대한 힘은 반드시 어머니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학교 내부에 있어서 어머니회의 의사 결정권은 교육회에 비하여 약할 때가 있다.

(2) 어머니회와 아버지회

아버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아버지회 활동 시에는 어머니회가 협력하면서 밑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아버지들은 규모가 큰 일을 담당하지만 그 옆에는 반드시 어머니회가 있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을 보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는 아버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행사 때 아버지회로서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 아버지회는 “어머니와 아이디어에 차이도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착실하게 부지런히 하며 아버지는 규모가 큰 일을 한다” (B 씨)고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회는 자선 골프에서 거액을 버는 한편,

어머니회는 모금함을 가지고 꾸준히 기금을 조성한다. 또한 ‘아버지회 급식’도 가끔 하는데, 아버지회는 엔니치(젓날), 참치 해체, 뼈에야 등 ‘화려한’ 기획을 해 온 반면, 어머니회 급식에서는 카레라이스 등 ‘평범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대대적인 활동도 사실 아버지회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회가 뭔가 하면 시리누구이(=뒤치다꺼리)는 어머니회가 해요. 아버지들이 하는 것은 구멍이 있으니까 그걸 어머니들이 보완하려고 항상 옆에서 봐요. 예를 들어서 안녕페스타도 아버지회에서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회도 그 뒤에 있거든요. 같은 입장이 아니지만 꼭 같이 활동해요.” (C 씨)

일본어로 ‘시리누구이’란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엉덩이 닦기’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실패 및 허술 등의 뒤처리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위의 발언에서 아버지회는 어머니회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회가 어머니회보다 먼저 결성된 학교나 어머니회 없이 아버지회만 단독으로 기능하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회는 반드시 어머니회와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겉으로는 아버지들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어머니들이 동행하여 도움이나 뒷정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반대

로, 어머니회가 활동할 때 아버지회가 나와서 활동 보조를 실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어머니회와 교육회, 아버지회 각각과의 조직 간 관계에서 어머니회는 조선학교의 학부모회 중에서도 남성 주도의 두 조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지배’란 어머니회가 그 활동 방침에 대해 교육회와 아버지회에서 직접적인 간섭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며, 더군다나 물리뉴(1988)의 여성 주체의 조직의 자율성에 관한 이론에서 이 두 조직이 어머니회에 대해 ‘지시 동원’인 것도 아니다. 즉, 아버지회와 교육회가 어머니회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분류되지도 않으나, 학부모 조직 사이에 가부장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1960년대 이후 총련 가부장적 구조의 불변성

그러면 이러한 어머니회를 둘러싼 젠더 불평등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는 1960년대부터 이어진 총련 내부의 가부장적 구조를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는 총련의 전성기였으며, 당시 조선인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행한 일’로 보여져 여성들은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 받았다. 또한 총련의 새로운 모성 프로젝트에 따르면, “어머니는 더 이상 단지 어머니가 아니라 애국적인 어머니이며, 가정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애국적인 가정”인 것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정서나 행위가 조직 전체를 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는 학교 운영에 협력하도록 권장된 것이었다¹⁵⁰.

“불필요한 부분에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어머니들의 근로 제공은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금 조달은 물론이고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도맡은 것은 어머니들이었다. 1960년대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급식 조달을 하고 박봉조차 받지 못한 젊은 교사들을 같이 살게 하고 밥을 먹여 주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물론 남편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대체로 학교 지원 활동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학교는 여성들(엄마들)의 공간이었다.”¹⁵¹

즉, 어머니들의 학교 운영 참여는 총련의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어머니회는 조선학교와 총련이라는 커뮤니티 전체의 어머니로서 집단적 모성을 기축으로 한 학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적 구조의 틀 자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애국적 모성’ 중 ‘애국’이라는 조국 지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라는 관

¹⁵⁰ 여성동맹에 있어서 자신의 자식만을 계속해서 돌보는 것은 비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며 ‘부르주아 계급과 자본가의 소행’으로 간주되었다. ソニア・リャン, 2005, pp. 111-112.

¹⁵¹ ソニア・リャン (2005) 의 의한 총련계 어머니들에 대한 설명을 인용. ソニア・リャン, 2005, pp. 112-113.

점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단, 학교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교직원의 손이 충분히 닿지 못 하는 일을 맡는다는 점은 바로 오늘날에도 어머니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활동이다. 여성 조직인 어머니회만이 오로지 학교 지원 활동에 진력하는 구도 자체는 1960년대의 어머니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즉, 어머니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총련의 일꾼으로 민족 교육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일을 총련 및 학교에서 하청 받아 왔으며, 여기에 명확한 젠더 구조가 인정된다.

3. 기존의 젠더 규범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그러나 오늘날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활동과 조직을 보는 한, 조국 유래의 가부장적 구조를 계승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나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거한 젠더 틀을 벗어나는 측면이 보이기도 한다.

1) 조국 지향의 약화

1960년대와 현재의 어머니회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제 3장에서 다룬 어머니회 활동 중 계발 활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대회를 보면 1960년대에는 명확한 조국 지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1962년 니가타에서 열린 제 1회 대회는 평양의 ‘전국 어머니 대회’의 김일성의 연설을 전하고 여성동맹 사업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¹⁵². 이 배경에는 1960년대 총련은 귀국 운동에 따른 조국 지

¹⁵² 洪ジョンウン, 2015, pp. 10-11.

향이 명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어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JR 통학 정기관의 학생 할인 차별과 치마 저고리 사건 등이 일어난 것에 영향을 받아 어머니대회의 취지도 문제 해결형으로 전환해 갔다. 1994년 6월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 사건의 방지를 요구하는 재일조선 어머니 중앙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대회는 지역의 네트워크 만들기에 임하는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널리 참여하여 총련계 재일조선인 여성 커뮤니티의 연결 지점 및 교류의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동맹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1960년대 당시 여성동맹에서 ‘강반석 여사를 배우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절대적인 롤모델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1968년에 총련의 여성동맹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나¹⁵³, 원래는 북한의 여성동맹이 시작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김정숙을 새로운 세대의 모범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이미 여성들의 관심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학교에서 김일성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배운 젊은 어머니들에게 ‘김정숙 학습 캠페인’은 새로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¹⁵⁴.

따라서 애국적 어머니는 더 이상 총련계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침이 될 수 없다. 물론 조선학교의 운영이 여전히 어머니회와 어머니회에 참

¹⁵³ 洪ジョンウン, 2015, p. 11.

¹⁵⁴ “구 세대의 시도가 언어와 정체성을 되찾는 탈식민 과정이었다고 하면, 젊은 여성들의 일상적인 실천에서 보이는 탈중심적·분산적 형태는 포스트식민 운동으로 나타난다”. ソニア・リャン, 2005, p. 129.

여하는 여성동맹 여성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머니들은 단순히 학교 경영에 협력할 뿐만 아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며, 자녀들의 성적을 경쟁할 수도 있다. 더 윗 세대의 어머니들과 달리, 현재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어머니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북한의 새로운 세대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내셔널리즘의 포괄적인 담론 속에서도 집단적인 여성 해방은 더 이상 젊은 어머니들이 향하는 목표가 아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¹⁵⁵. 이처럼 어머니회 어머니들은 구조적인 가부장적 구조 안에 있으면서도 단순히 원래 북한에서 추구하는 순종적이며 종속적인 어머니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시대 배경과 재일의 세대를 반영하는 부분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어머니회의 자율적인 측면

현재 어머니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총련 사회에서 남성 밑에 위치하는 헌신하는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나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세미나 개최 등 각 학교의 어머니회 활동에서 자율성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첫째, 어머니회는 조선학교를 대표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교육 상속을 위해 유엔에 가서 어머니 스스로가 마이크를 잡는다는 두드러진 활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일본 학교의 PTA와의 교류를 어머니회가 담당하고 있다. 1999년 11월 미에현 교소신문에는 옷

¹⁵⁵ ソニア・リャン, 2005, p. 129.

가이치조선초중급학교가 1988년도부터 조선학교와 일본 학교의 학부모들끼리의 교류를 시작한 것이 소개되어 있다¹⁵⁶. 일본 학교의 창구는 PTA이며, 조선학교 쪽에서는 어머니회가 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PTA의 카운터파트가 교육회가 아니라 어머니회라는 것은 특필할 만하다.

또한 야마모토(2012)에 의하면, A조선중고급학교에서도 어머니회 수준에서 일본 학교의 PTA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치현 사학 학교의 학부모 간친회인 ‘료쿠가쿠구’(緑学区)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요리 교실을 열어본 적도 있다고 한다¹⁵⁷. 일본 학교와의 교류는 조선학교에 입장에서는 ‘대외 사업’이며 공적인 활동이다. 만약 어머니회가 시도 때도 없이 남성 뒤에서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다면 일본 학교 학부모회와 대면할 때는 PTA를 전신으로 하는 교육회 나와도 좋지 않을 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회가 아니라 어머니회가 나가서 일본 학교의 상대역을 맡는다는 것은 어머니회에 조선학교 얼굴로 상징적인 역할이 기대되면서 어머니회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회는 어머니회 독자의 행사를 기획할 경우에 어머니들이 스스로 학교 관리직 사람들에게 협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육가이치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가 ‘60만 번의 트라이’라는 영화 상영회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회 회장이 기획 단계에 있어서 이 이

¹⁵⁶ 民族教育編集委員会, 『民族教育 1999年度各新聞に掲載された民族教育に関する資料』(2000), p. 129.

¹⁵⁷ 또한 조선학교와 일본 학교의 학부모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고교 무상화 적용을 위한 서명을 의뢰하기도 한다. 山本, 2012, p. 158.

벤트를 진행할 것을 교장에게 직접 담판 짓고 나서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거나 장소 결정 및 예산 조항하는 등 어머니회에서 모두 담당하였다¹⁵⁸. 어머니회가 여성동맹이나 다른 총련 조직과의 공동 기획이 아니라 어머니회만의 행사를 준비하고 남성 교장에게 협상했다는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 2017년도에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상영회를 실시했다. 위안부는 단순히 젠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에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있는 복합적인 이슈이며, 이 기획에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다시 역사를 검토하는 계몽 활동의 의미가 담겨 있었으나, 동시에 여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는 일도 남성 중심의 총련 사회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머니회 기획 활동은 모두 어머니회 활동 내용에 회칙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각 학교의 어머니회 활동 결정 시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것에 의거하는 것이다. 어머니회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조직의 보완적인 존재로서 기능하나,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에서는 일정한 자율성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 커뮤니티 워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부장적 구조가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총련 커뮤니티에서 조선학교의 학부모 조직은 분업 체제가 깔려 있으

¹⁵⁸ 옷가이치조선초중급학교 블로그 참조.

며 그 각각의 활동 내용과 어머니회와의 조직 간의 관계에서 젠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머니회의 일이 확실히 ‘그림자 노동’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단순히 비가시화된 노동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어머니회의 활동 내용을 단순히 남성 주도 하의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어머니회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논의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어머니회는 대체로 민족 교육의 유지를 기축으로 자리를 잡고 학교 지원 활동을 해 왔으나, 민족 학교는 총련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기관이다. 조선학교는 교사도 학부모도 대부분 조선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재생산 기능을 가지는 데다가 행사 때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졸업생 및 기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소이며, 학교 자체가 ‘커뮤니티의 연결 지점’이라는 역할을 한다¹⁵⁹. 따라서 민족 교육의 유지에 지속적으로 힘써 온 어머니회의 활동은 결국 조선학교라는 범주를 넘어 재일조선인의 지역 사회의 생존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머니회 활동의 형식은 그림자 노동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총련계 커뮤니티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¹⁵⁹ ‘조선학교 커뮤니티’에는 ‘재생산 기능’이 있으며, 또한 ‘커뮤니티의 연결 지점’이라는 역할도 있다. 후자의 경우 조선학교 운동회를 비롯한 행사 때 학부모들과 친척들이 모두 학교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학년과 형제 관계를 넘어서 같이 노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中島, 2013, pp. 80-83.

따라서 어머니회의 활동은 권숙인(2017)이 제창한 ‘커뮤니티 워크’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머니회의 활동은 임금 노동이 아니라 동시에 가정 내에서 하는 작업과도 다르다. 어머니회의 일이 민족 교육 또한 재일조선인 사회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민족 공동체에 있어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대하여 재일조선인 남성과 총련의 남성 중심의 조직을 기존의 존재로 보고, 어머니회를 종속적인 존재 일변도로 소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총련 기존의 가부장적 구조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용인하면서도 어머니회가 학교 내외에서 하는 활동에 대하여 성이니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티 워크를 하고 있다는 별도의 재평가가 필수불가결하다.

5. 어머니들의 갈등

이상에 언급한 바와 같이 총련은 남성 중심의 민족 조직이며,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부장적 구조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또한 젠더 불평등이 조선학교의 학부모회의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회 어머니들은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1) 세대 간의 갈등

조선학교 어머니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 회장을 맡고 있던 B 씨의 “항상 여성동맹에 (여러 가지 일을) 여쭙본다”는 발언에 있어서 여성동맹은 정확히 말하

면 여성동맹에 소속하면서 학교의 어머니회에 참여하는 어르신 어머니들을 가리키지만, 총련의 여성 사회에는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어머니회는 여성동맹의 나이가 많은 어머니들도 빈번하게 출입하지만, 연령이나 재일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와 거북함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머니회 구성원인 비교적 젊은 어머니들이 어머니회에서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아리 활동이다. 예를 들어, 1988년 시점에서 도우노우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어머니들이 무용과 가야금 서클을 만들어 연습을 하고 있었다¹⁶⁰. 또한 아мага사키히가시조선초급학교 어머니회는 배구부와 장구 등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며, 2003년에는 절반의 어머니들이 참석하고 있었다¹⁶¹. 그리고 도쿄조선제3초급학교는 2017년 이후 어머니회에서 핸드메이드부를 만들어서 이 개월에 한 번씩 손수 만드는 작품 제작을 배우는 교실을 열고 있다¹⁶².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단순히 친목을 중시하고 있거나, 결속력을 강화하여 행정에 대한 요청 활동을 비롯한 다른 활동을 원활히 실시하기 쉽게 하거나, 또한 조국의 전통 악기와 춤을 배우는 교실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들 자신의 민족 의식의 강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 목적

¹⁶⁰ 도우노우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동아리 활동은 뒤에서 언급한 ‘세대간 갈등’에 의하여 결성된 것이 아니라 민족성의 유지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1988년 당시 도우노우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회 어머니들의 반 이상은 민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민족 학교는 부모들도 조선인이 되기 위한 곳”이다. 卞喜載·全哲男, 1988, pp. 97-98.

¹⁶¹ 『朝鮮新報』, 2003년 4월 11일.

¹⁶² 도쿄조선제3초급학교 홈페이지 참조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회 내부 동아리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머니회의 구성원인 젊은 어머니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성동맹의 중년 어머니들과는 나누어진 별도의 활동 공간을 일부러 확보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추측의 근거는 여성동맹 지방 지부의 젊은 어머니들의 동아리 활동에서 찾아진다. 세대가 젊은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그룹을 이전 세대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하단의 단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활동은 영어와 꽃꽂이, 패치 워크, 댄스, 요리 등 ‘문화 교실’로 대표된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구태의연하게 비치는 기존의 조직 활동에 대한 돌파구”이며 총련의 정통과에 대항하는 ‘카운터 컬처’로 간주되지만, 구 세대의 어머니들은 젊은 어머니들의 이러한 활동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총련이 원래 추구해 왔던 혁명 사상과 그것을 여성들이 이어 나가야 한다는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총련 여성 세계에서 나이와 세대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과 여성동맹이라는 공적인 공간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¹⁶³. 현재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재일 3세이며,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많으나, 여성동맹의 재일 2세를 중심으로 한 연상 어머니들과의 협력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세대 및 연령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머니회 내부 동아리 활동은 순수하게 조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같은 세대의 어머니만으로 만들어지는 자주적인 활동 장소이며, 여성

¹⁶³ ソニア・リャン, 2005, pp. 125-127.

동맹 안의 연공서열 사회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추측된다.

2) 어머니들의 의식 차이

어머니회에 속해 있는 어머니들 중에서도 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적극성과 태도는 다양하다. 이번 인터뷰 조사 협력자 5명 중에는 어머니회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 경험자가 3명, 조선학교 교원 경험자가 3명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교와 총련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어머니회의 모든 활동에 매우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머니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 모두가 어머니회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냐고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들에 따르면, 운동회에서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이 공동으로 식사와 음료수 판매를 하는데, 어머니회에 관심이 없는 어머니들은 사지 않는다고 한다.

“미디어 정보가 더 많이 들어와서 어머니회에 자주 오지 않으면 (조선학교나 총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이겨 버릴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니깐요. 작은 학교는 모두가 어머니회에 참여하지만, 사이타마는 수가 많아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해 주는 거죠.” (B 씨)

자녀의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들도 자동으로 어머니회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은 어머니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어머니들이 어머니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물론, 어머니회가 담당하는 기금 모금을 위한 수첩 만들기 등의 작업에 대하여 “하기 싫은 사람은 없고, 어머니회의 활동이 모두 좋은 휴식이 되어 있다” (A 씨)라는 발언도 있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머니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것이지, 어머니회에 형식적 구성원으로 존재하면서도 학교에 별로 오지 않는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머니들 중에는 직장 때문에 바빠서 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회가 담당하는 업무의 상당한 양과 무급 노동 부담의 크기, 어머니회의 어머니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번거로움, 남성 중심적인 총련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혐오감 등이 어머니회의 불참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추측에 지나지 않고, 어머니회의 어머니들 사이의 의식 차이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와 검토의 여지가 있다.

VI.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어떤 조직이며, 조선학교와 총련계 커뮤니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했다. 조선학교는 어머니회, 교육회, 아버지회라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조직이 세 개 있으며, 특히 어머니회와 교육회는 모든 조선학교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어머니는 어머니회와 교육회에 모두 소속하는 것이 가능하며, 학부모의 조직이 이원화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학교의 독특한 구조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하여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요청 활동 (2) 조선 학교 운영을 위한 기금 모금 (3) 계발 활동 (4) 협력과 네트워킹 (5) 학교 행사의 보좌 (6) 학교 행사의 주최라는 6가지에 대하여 언급한 후, 어머니회의 존재 이유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어머니회의 존재 이유 네 가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첫째, 어머니회는 여성동맹이라는 강력한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동맹은 어머니회에 참여함으로써 그 활동의 폭을 학교라는 공공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여성동맹과 어머니회의 관계에 대하여 ‘어머니회’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여성동맹의 후원과 협동인 경우가 많으며, 어머니회가 조직으로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어머니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는 OG회면면도 포함하여 여성동맹에 관여하는 여성들을 다의적으로 가리킨다. 어머니회는 학교 안의 학부모회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성동

맹의 어머니들이 총동원되는 장소이다. 둘째, 어머니들의 정체성 유지와 재건이며, 이것은 계발 활동의 의의이자 아이들의 민족성과 민족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들은 어머니회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제사나 아이들의 진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넷째, 민족 교육의 유지이다. 이는 상술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관점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회가 총련과 여성동맹의 지도를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일이다.

그럼 조선학교 어머니회는 왜 존재 하는가. 어머니회는 설립 초기부터 여성동맹에 의한 자녀 교육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으며 여성동맹이 학교 안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총련이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 학교의 유지와 민족 공동체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회를 매개로 한 아이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총련 - 여성동맹 - 어머니회 - 어머니 개개인 - 아이라는 지도의 구도가 이미 존재한다. 여기에서 어머니회가 지도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란 어머니회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일본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나 학령 전 아동의 어머니도 포함되어서 재일조선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회의 활동 범위가 학교 외에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선학교의 학부모 조직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 조직의 분업 체제에 의한 것이며, 여기서 총련의 젠더 구조가 노출된다. 예를 들어, 교육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교직원이나 찬동자를 포

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조직이면서도 주도권은 남성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교육회는 학교 운영의 기반이 되는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조선고급학교 무상화 및 보조금 교부 등의 요청과 운동, 행사 운영 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역시 어머니회이다¹⁶⁴. 교육회는 PTA의 후신이지만 담당 업무의 폭이 제한적이며,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잡무의 대부분은 어머니회에 맡긴다. 이러한 젠더 불평등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수직 구조를 가진 총련의 가부장적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어머니회의 조직과 활동을 보는 한 젠더 불평등이 뚜렷하다. 그러나 어머니회가 여성동맹의 하위 조직으로서 여성동맹의 ‘지시 동원’으로 기능하고 있거나, 남성 중심의 조직의 하청 업무만을 맡고 있거나 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어머니회에는 회칙이 반드시 존재하거나 총련에서부터 명문화된 지침 등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며, 활동 내용은 각 학교의 어머니회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어머니회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조선학교 어머니회가 총련계 커뮤니티 속에서 하는 역할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물론 조선학교는 전통적인 젠더 역할 분업이 깔려 있으며, 어머니회에는 아버지회와 교육회에 종속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 구조 안에 가부장적 구조가 아직도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머니회가 담당하

¹⁶⁴ 중의원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화 즉시 적용을 요구하는 원내 집회에 각 학교의 어머니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토의에 참여하거나, 어머니들이 ‘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배제를 반대하는 연락회’의 월례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朝鮮學校のある風景』 18, 2013, pp. 39-41, pp. 52-53.

는 ‘일’은 단순히 ‘무급 노동’, 더 나아가 ‘그림자 노동’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족 교육의 존속과 그에 따른 총련계 총련계 커뮤니티의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회의 제반 활동은 조선학교를 둘러싼 일본 사회로부터의 억압에 저항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온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어머니회는 그 때마다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조선학교의 재정난 및 입학자의 감소라는 곤경 속에서 더 많은 동포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여기서 어머니회의 활동은 남성 사회에 대한 보완으로 이루어지는 일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권숙인(2017)의 제창한 ‘커뮤니티 워크’로 가시화를 시켜야 한다. 즉, 민족 학교가 민족 공동체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머니회가 조선학교 커뮤니티는 물론, 학교라는 틀을 넘어서 제일 사회가 유지되는 데 담당해 온 역할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밝힐 수 없었던 과제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로, 조선 학교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의 관계에 대하여 도도부 현이나 학교 별 다양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의 어머니회가 공식적으로 여성동맹의 산하 단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어느 쪽이든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동맹과 어머니회와의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회가 여성동맹의 산하 단체에 있는 학교는 전국에 얼마나 존재하

는지, 여성동맹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는가와 각 도도부현의 총련의 힘의 크기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산하 단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여성동맹이 어머니회에 개입하는 경우나 빈도가 얼마나 다른지라는 의문에 해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선학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모두에 어머니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된 분석 자료로 인하여 어머니회와 여성동맹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단편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사이타마조선초중급학교에 대하여 어머니회 회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여성동맹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이는 사이타마 학교 어머니회가 여성동맹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회가 여성동맹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지 않은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어머니회 회장이 선발되어서 최종 결정이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동맹 산하에 어머니회가 존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사이타마 학교와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사이타마 총련 지부의 활동이 비교적으로 활발하며 힘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이타마 학교의 어머니회가 특수한 케이스인 경우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머니회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하여 보다 심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동맹과 어머니회의 관계를 더 다각적으로 조사한 뒤 가능하면 유형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어머니회와 관련된 더욱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회의 전체 상을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먼저 연구 방

법 및 제 5장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인터뷰 협력자 다섯 명 중 조선학교의 교원 경험자와 어머니회 회장 및 부회장이 각각 3 명씩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동맹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이타마와 니가타는 총련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으로 생각된다. 인터뷰에서는 총련과 여성동맹,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어머니회가 학교에서 가진 힘의 크기와 어머니들이 우리 학교에 해 온 진력 등의 성과만이 강조된 한편 총련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거의 없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어머니회 관련 기술 방법도 마찬가지로 지였다. 예를 들어, 조선신보사 출판 잡지 『월간 이오』와 조선신보의 각종 신문 기사, ‘우리 학교를 기록하는 모임’의 회원 잡지 『조선 학교가 있는 풍경』, ‘우리 학교를 엮는 모임’의 서적 등은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면서도 선행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머니회의 다양한 활동이 명기되어 있어서 어머니회의 실태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도 조선 학교를 ‘우리 학교’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어머니회 내부의 어머니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갈등, 어머니회의 부정적인 측면 등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된 자료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어머니회에 대한 매우 제한된 견해이며, 다각적인 관점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 어머니들에게 어머니회와 총련에 대한

생각을 듣는 것은 어머니회의 약점과 어머니들의 갈등을 밝히면서 어머니회를 젠더 관점에서 보다 깊이 분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1970~1980년대 어머니회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총련이 조직된 지 얼마되지 않은 1960년대에 관해서는 여성동맹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회에 대한 기술을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재일조선인 관련 잡지에서 어머니회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전의 기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어머니대회에 관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데 이 시기에는 어머니대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았던 것인지, 또는 개최되었으나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어머니회의 결성 시기를 참조해 보면 1980년대에 어머니회가 만들어진 학교도 다수 있는데, 그 설립 경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며 어머니회의 지금까지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도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어머니회의 조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당시 어머니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어머니들을 찾아가서 그 때 당시의 어머니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 중 하나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연구 주제는 아니었으나, 교육회와 아버지회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앞으로 요구된다. 조선학교 어머니회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서론에서 언급하였으나, 교육회와 아버지회를 주제로 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 조선학교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는 교

과 과정과 역사, 정체성의 갈등 등에 치우쳐 있어 학부모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적는데 특히 학교 내 학부모 조직에 주목한 것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회나 아버지회를 핵심어로 담은 연구조차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육회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PTA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선학교의 독특한 구조가 반영된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아버지회는 어머니회와 교육회에 비하여 새로운 조직이며, 아버지회가 설립된 배경과 경위, 아버지회에서 대표적 역할을 맡는 사람들과 총련 본부와의 관계성, 조선학교를 둘러싼 총련계 커뮤니티에서 아버지회 아버지들이 맡는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 주제로 조사할 만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 연구는 한국 국내에서 최근에 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나, 재일조선인 남성과 ‘아버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권숙인 (2017)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한국에서 재일조선인 관련 연구 논문은 약 400편 나왔는데 그 중 “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17편에 불과하였다¹⁶⁵. 그러나 남성에 주목한 연구는 더 적기 때문에 향후 연구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어머니 분석을 더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조선학교의 다른 두 가지 학부모 조직과의 관련성과 조직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며 어머니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젠더 관점에서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회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위해서도 교육회 및 아버지회에 관한 조사도 향후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¹⁶⁵ 권숙인, 2017, p. 42.

참고문헌

I. 1차 자료

1. 지자체 및 정부 보고서

東京都. 『朝鮮学校調査報告書』. 2013.

文部科学省.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の支給に関する審査会(第6回平成24年3月26日) 会議資料』. 2012. (http://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detail/1342950.htm,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2. 신문 자료

朝日新聞, 『万景峰号、積み荷は中古のボルボ、音響機器など』(2013년 8월 26일), (<http://www.asahi.com/special/nuclear/TKY200308250226.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産経新聞, 『朝鮮学校への補助金停止へ 新潟市、児童・生徒ゼロで休校状態』(2018년 5월 2일),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502-00000534-san-kr>,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朝鮮新報, 『「3人4脚」で学校守る一女性同盟、オモニ会、「ポッチクラブ」』(2003년 4월 11일), (<http://cache.yahoofs.jp/search/cache?c=hehT1-d49NcJ&p=%E6%9C%9D%E9%AE%AE%E6%96%B0%E5%A0%B1+%E5%B0%BC%E5%B4%8E%E6%9D%B1+%E3%82%B5%E3>

%83%BC%E3%82%AF%E3%83%AB%E6%B4%BB%E5%8B%95+%E3%82%AA%E3%83%A2%E3%83%8B&u=60.43.217.162%2Fj-2003%2Fj01%2F0301j0411-30001.htm,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_____, 『〈第9回中央オモニ大会〉850余人が参加 東京朝高学区のオモニらが実行委／オモニたちのパワーを一つに』(2012년 9월 10일), (http://cache.yahoofs.jp/search/cache?c=p_CiInjLup8J&p=%E6%96%B0%E3%81%9F%E3%81%AA%E6%99%82%E4%BB%A3%E3%81%AE%E3%83%8B%E3%83%BC%E3%82%BA%E3%81%AB+%E3%82%AA%E3%83%A2%E3%83%8B&u=chosonsinbo.com%2Fjp%2F2012%2F09%2F0910ry%2F),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_____, 『オモニ代表团、28日出発／国連社会権規約委に参加』(2013년 4월 23일), (<http://cache.yahoofs.jp/search/cache?c=NtS2Z822gK4J&p=%E3%82%AA%E3%83%A2%E3%83%8B%E4%BB%A3%E8%A1%A8%E5%9B%A3+28%E6%97%A5%E3%81%AB%E5%87%BA%E7%99%BA&u=chosonsinbo.com%2Fjp%2F2013%2F04%2F0423yd-2%2F>),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_____, 『東京中高オモニ会主催講演会／子どもの思いに寄り添って』(2014년 1월 21일), (http://cache.yahoofs.jp/search/cache?c=1snHQWOh_HYJ&p=2014+%E3%82%AA%E3%83%A2%E3%83%8B%E4%BC%9A+%E8%AC%9B%E6%BC%94%E4%BC%9A&u=chosonsinbo.com%2Fjp%2F2014%2F01%2F01momonikouen%2F),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_____, 『映画「ウルボ〜泣き虫ボクシング部〜」上映会／東京中高、

650人で鑑賞会』 (2016년 2월 2일) , (<http://cache.yahoofs.jp/search/cache?c=4gFNbsXptLsJ&p=%E6%9D%B1%E4%BA%AC+%E3%83%9C%E3%82%AF%E3%82%B7%E3%83%B3%E3%82%B0%E9%83%A8+%E6%98%A0%E7%94%BB+%E9%91%91%E8%B3%9E&u=chosonsinbo.com%2Fjp%2F2016%2F02%2Fsk22-2%2F>,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_____, 『長野初中オモニ会が作るチョゴリタンブラーとノートスクールバスー新のために／県を越え各地から反響』 (2016년 7월 13일) , (<http://cache.yahoofs.jp/search/cache?c=H2KRCmh5tt4J&p=%E9%95%B7%E9%87%8E+%E6%9C%9D%E9%AE%AE%E5%AD%A6%E6%A0%A1+%E3%83%8E%E3%83%BC%E3%83%88+%E3%82%AA%E3%83%A2%E3%83%8B%E4%BC%9A&u=chosonsinbo.com%2Fjp%2F2016%2F07%2F0713ks%2F>,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_____, 『朝鮮学校生徒の学習権保障を／大阪府オモニ連絡会、文科省に要請』 (2019년 1월 22일) , (http://cache.yahoofs.jp/search/cache?c=FdQ_Gnnqw4gJ&p=%E5%A4%A7%E9%98%AA%E5%BA%9C+%E3%82%AA%E3%83%A2%E3%83%8B%E9%80%A3%E7%B5%A1%E4%BC%9A+%E6%9C%9D%E9%AE%AE%E6%96%B0%E5%A0%B1&u=chosonsinbo.com%2Fjp%2F2019%2F01%2Fcsg0122%2F,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_____, 『朝鮮学校学生・オモニ代表団の活動報告／ジュネーブで国連・子どもの権利委員会日本報告書審査 朝鮮高校生生徒たちの声を

届けに』(2019년 1월 26일), (<http://chosonsinbo.com/jp/2019/01/csg0126/>),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경향신문, 『일본 ‘조선학교 어머니회’ 한경희통일평화상 수상』
(2018년 4월 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61027001&code=940100#csidxbd995f6a86aa4a8979e83e490c8e10e),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한겨레, 『‘한경희상’에 조선학교 어머니회』(2018년 3월 11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ngo/835588.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한국대학신문, 『성공회대, 한경희통일평화상에 ‘조선학교 어머니회’ 선정』(2018년 3월 10일),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524>),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3. 잡지 및 자료집

- 朝鮮新報社. 『月刊イオ』 3. 1996.
_____. 『月刊イオ』 6. 1996.
_____. 『月刊イオ』 13. 1997.
_____. 『月刊イオ』 14. 1997.
_____. 『月刊イオ』 47. 2000.
_____. 『月刊イオ』 159. 2009.

Urihakkio (朝鮮学校) を記録する会. 2013. 『朝鮮学校のある風景』 19.

一粒出版.

民族教育編集委員会. 『民族教育 1991年度에 日本의 各 新聞에 掲載된

民族教育에 関한 資料』. 1992.

_____. 『民族教育 1994年度에 日本의 各 新聞에 掲載된

民族教育에 関한 資料』. 1994.

_____. 『民族教育 1996年度에 日本의 各 新聞에 掲載된

民族教育에 関한 資料』. 1996.

_____. 『民族教育 1999年度各新聞に掲載された民族教育に

関する資料』. 2000.

_____. 『民族教育 2000年度各新聞に掲載された民族教育に

関する資料』. 2001.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은혜로운 사랑속에 수놓아온

70년 1947~2017』. 2017.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同胞女性을 네트워크하는

조선여성』 2018春・夏号 (No. 578). 2018.

4. 기타

公益社団法人日本PTA全国協議会

(<http://www.nippon-pta.or.jp/jigyoku/ayumi/index.html>, 査

중검색일: 2019년 7월 1일).

코리아国際学園

(<http://kiskorea.ed.jp/>,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在日本朝鮮民主女性同盟

(<http://www.ncafe.biz/>,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

(www.chongryon.com/,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東京朝鮮第三初級學校

(<http://che3.jp/supports/mothers/3500.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東京韓國學校

(www.tokos.ed.jp/smain.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東京朝鮮學校オモニエ會連絡會

(<https://blogs.yahoo.co.jp/tokyoparam/folder/328106.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広島朝鮮初中高級學校オモニエ會

(<https://ameblo.jp/omonikai/entrylist.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ベルマーク教育助成財団

(<http://www.bellmark.or.jp/>,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岡山朝鮮初中級學校

(<http://okayama-hakkyo.com/access>,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大阪福島朝鮮初級学校

(<http://o-fuku.sub.jp/annai.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京都朝鮮第二初級学校

(<http://www.kyotoche2.com/index01.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千葉朝鮮初中級学校

(<http://chiba.hakkyo.net/html/info.htm>,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茨城朝鮮初中高級学校

(<http://www.hakkyo.ac.jp/enkaku/enkaku.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京都朝鮮初級学校・付属幼稚園

(<http://kyotokorean-els.ed.jp/category/%E3%82%A2%E3%83%9C%E3%82%B8%E4%BC%9A/>,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神戸朝鮮初中級学校

(<https://www.kobe-korean.com/%E3%82%A2%E3%83%9C%E3%82%B8%E4%BC%9A/>,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四日市朝鮮初中級学校

(<http://www.yokkaichi-ks.com/parents/archives/tag/%E3%82%AA%E3%83%A2%E3%83%8B%E4%BC%9A/page:3>,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조선신보사 회사소개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nUCJgCR9BuQJ:chosonsinbo.com/aboutus/+&cd=2&hl=ja&ct=clnk&gl=kr>,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Yokohama C Plat, 『神奈川朝鮮学園オモニ会連絡会』

(<http://www.yokohama-c-plat.org/member/2010063.html>, 최종검색일: 2019년 7월 1일).

II. 2차 자료

1. 단행본

岩竹美加子. 2017. 『PTAという国家装置』. 東京: 青弓社.

上野千鶴子. 2009. 『家父長制と資本制 マルクス主義フェミニズムの地平』.
東京: 岩波書店.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会. 2001. 『朝鮮学校ってどんなところ?』. 東京: 社会評論社.

江原護. 2003. 『民族学校問題を考える』. 東京: 星雲社.

落合恵美子・赤枝香奈子 編. 2012. 『アジア女性と親密性の労働』.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 金栄・金富子. 1994. 『第二次世界大戦(解放) 直後の在日朝鮮人女性運動』.
東京：東京女性財団.
- 公益社団法人日本PTA全国協議会. 2015. 『今すぐ役立つ PTA応援マニュアル』. 東京：ジアース教育新社.
-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在日コリアン辞典編集委員会. 2010. 『在日コリアン辞典』. 東京：明石書店.
- 在日朝鮮人・人権セミナー. 1999. 『在日朝鮮人と日本社会』. 東京：明石書店.
- 瀬地山角. 1996. 『東アジアの家父長制 ジェンダーの比較社会学』. 東京：勁草書房.
- 徐阿貴. 2012.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 東京：御茶の水書房.
- ソニア・リャン. 2005.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 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 東京：明石書店.
- 宋基燦. 2012.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学校—在日民族教育と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ックス—』. 東京：岩波書店.
- 田中宏. 2002. 『在日コリアン権利宣言』. 東京：岩波書店.
- 田中雅一・中谷文美 編. 2005. 『ジェンダーで学ぶ文化人類学』. 京都：世界思想社.
- 朴三石. 1992. 『問われる朝鮮学校処遇 日本の国際化の盲点』. 東京：朝鮮青年社.
- _____. 1997. 『日本のなかの朝鮮学校 21世紀にはばたく』. 東京：朝鮮青

年社.

_____. 2011. 『教育を受ける権利と朝鮮学校 高校無償化問題から見えてきたこと』. 東京：日本評論社.

韓東賢. 2006. 『チマチョゴリ制服の民族誌 その誕生と朝鮮学校の女性たち』. 東京：双風舎.

卞喜載・全哲男. 1988. 『いま朝鮮学校で なぜ民族教育か』. 東京：朝鮮青年社.

Ivan Illich 著. 玉野井芳郎・栗原彬 訳. 1982. 『シャドウ・ワーク 生活のあり方を問う』. 東京：岩波書店.

2. 논문

板垣竜太. 2013. 「資料：朝鮮学校への嫌がらせ裁判に対する意見書」. 『評論・社会科学』 105. pp. 149-185.

李修京・井竿富雄・呉永鎬. 2010. 「日本における外国人学校政策と在日朝鮮人の教育事情」. 『東京学芸大学紀要 人文社会科学系 I』 61. pp. 143-157.

李玲実. 2018. 「解放直後の在日朝鮮人女性運動の生成と女性活動家 —『在日本朝鮮民主女性同盟』結成過程を中心に—」. 『日韓相互認識』 8. pp. 31-54.

金栄. 2009. 「解放直後の女性同盟が目指した『女性解放』」. 『戦争と性』 28. pp. 112-117.

金泰泳. 2006. 「在日コリアン教育と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 雑誌『三千里』,

『青丘』にみられる在日コリアン教育言説」、『韓国民俗文化』2

7. pp. 231-253.

金兌恩. 2006. 「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位置に 関する社会学的考察 : 大阪と京都における『民族学級』 の事例から」.

『京都社会学年報』14. pp. 21-41.

曹慶鎬. 2011. 「『朝鮮学校コミュニティ』と 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 —朝鮮学校在学学生を対象としたインタビュー調査を通じて—」. 『ソシオロゴス』35. pp. 96-110.

中島智子. 2011. 「朝鮮学校保護者の学校選択理由 —『安心できる居場所』『当たり前』をもとめて—」. 『プール学院大学研究紀要』51. pp. 189-202.

_____. 2013. 「朝鮮学校の二つの仕組みと日本社会 : <自己完結統一システム>と<朝鮮学校コミュニティ>に着目して」. 『教育と社会』2. pp. 77-86.

橋本みゆき. 2001. 「娘の結婚～既婚の娘を持つ在日韓国・朝鮮人女性の語りから～」. 『立教大学ジェンダーフォーラム年報』4. pp. 5-19.

広島朝鮮初中高級学校オモニ会 (梁明子・朴陽子). 2014. 「特集 ウリハッキョ : 民族の誇りと共生を求める朝鮮学校 一人はみんなのために、みんなは一人のために 広島ハッキョオモニ会の活動を通じて」. 『部落解放』687. pp. 34-43.

黄止琬. 2011. 「日本の公教育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の民族学級の意義と可

- 能性—多文化教育という視点からみた在日コリアンの民族教育—」. 『日本近代學研究』 31. pp. 173-190.
- 洪ジョンウン. 2015. 「『女性同盟』とオモニ・アイデンティティ : 1960年代在日朝鮮人の民族運動における女性たちの遂行性を中心に」. 『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 14. pp. 3-16.
- 山本かほり. 2012. 「朝鮮学校における『民族』の形成—A朝鮮中高級学校での参与観察から—」. 『愛知県立大学教育福祉学部論集』 61. pp. 145-160.
- _____. 2014. 「朝鮮学校で学ぶということ」. 『移民政策研究』 6. pp. 74-93.
- _____. 2017. 「特集：排外主義に抗する社会 排外主義の中の朝鮮学校—ヘイトスピーチを生み出すものを考える」. 『移民政策研究』 9. pp. 38-56.
- 梁陽日. 2013. 「大阪市立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課題と展望—民族学級の教育運動を手がかりに—」. 『Core Ethics』 9. pp. 245-256.
- 권숙인. 2017.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어요” -재일한인 1세 여성의 노동경험과 그 의미」. 『사회와 역사』 113. pp. 41-82.
- 한영혜. 2017. 「협정영주권과 재일한인 정체성의 재구성 — ‘조선’ 과 ‘한국’ ;경계짓기와 경계넘기」. 『사회와 역사』 113. pp. 161-218.

- Di Leonardo, Micaela. 1987. "The Female World of Cards and Holidays: Women, Families, and the Work of Kinship."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2(3): 440-453.
- Maxine Molyneux. 1998. "Analysing Woman's Movements." *Development and Change*, 29: 219-245.

연 표

-여성동맹 및 조선학교 어머니회를 둘러싼 주요사건-¹⁶⁶

년	날짜	중요한 사건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해방. ‘국어강습소’ 등의 형태로 민족교육이 시작
	10월 15일	‘재일본조선인연맹’ (조련) 결성
1946년	3월	조련 제4회 중앙위원회에서 ‘부녀부’ 설치
	4월 4일	국어강습소들이 3년제 초등학교로 발전 (9월에 6년제 정규학교로 발전)
	10월 5일	도쿄조선중학교 창립
1947년	2월 28일	‘재일본조선민주부녀동맹’ (부녀동맹) 결성
	3월 6일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 (민청) 결성
	9월 11일	제2차준비위원회에서 ‘재일본조선민주부녀동맹’ 을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으로 명칭을 바꿀 것과 규약, 활동방침 등을 결정
	10월 12~13일	‘부녀동맹’ 중앙대회에서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여성동맹) 결성
	12월 29일	여성동맹 기관지 『녀맹시보』 창간

¹⁶⁶ 이 연표는 洪ジョンウン(2015) 및 여성동맹 70돐 기념지(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2017)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1948년	4월 24일	한신교육투쟁: 효고 (효고현 동포들의 투쟁 결과 현지사가 ‘학교폐쇄령’ 철회를 승인)
	4월 26일	한신교육투쟁: 오사카 (조선학교폐쇄령반대 투쟁에서 김태일 소년이 경찰의 총을 맞아 사망)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949년	9월 8일	조련과 민청 강제 해산 (여성동맹은 해산되지 않고 잔류)
	10월 19일	제2차 ‘조선학교 폐쇄령’ 시행
1950년	4월 24일	‘재일조선인단체중앙협의회’ 결성 (민전 결성까지 과도적인 역할 수행)
1951년	1월 9일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 (민전) 결성
	5월 26일	‘재일조선인학교학부협회 (PTA) 전국학부형연합회’ 결성
1952년	4월 28일	‘외국인등록법’ 공포 및 시행
1953년	4월 15일	카나가와 쓰루미 학교에 처음으로 유치원 개설
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총련) 결성
	7월 2일	재일조선인학교 PTA를 발전적으로 해산하여 ‘재일본조선인교육회’ 결성
1956년	4월 10일	조선대학교 창립
	11월 30일	지문등록 철폐와 생활권 보장을 위한 항의요청운동 전개

1957년	1월 19일	‘재일조선인교육자대회’ (교직동, 교육회, 여성동맹, 어머니회 대표 참가)
1959년	6월 3~12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귀국 실현 요구 고베-도 교간 자전거행진
	12월 14일	제1차 귀국선 니가타항을 출항
1961년	11월 21일	여성동맹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일본정부에 항의단을 파견
1965년	10월 12일	총련 결성 10주년을 축하하는 재일조선녀성중앙대회 건강우량아심사 표창과 모범어머니 표창
1968년	3월 1일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는 운동’ 시작
	4월 17일	조선대학교 법인인가 획득
1973년	10월 18~19일	‘제1차 재일조선어머니중앙배구대회’ (이후 현재까지 계속 개최되어 옴)
	12월 24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탄생 60돐 기념강연회를 각지에서 진행
1983년	6월 28일	금강산가극단이 가극 ‘어머니의 소원’ 첫 상연
1985년	1월 27일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쓰는 운동’을 벌리기 위한 상 공회, 조청, 여성동맹, 교직동, 류학동 합동 회의
	5월 15일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시정을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 앙대회’ (1만여명이 참가)
1987년	4월 27일	재일동포들이 처음으로 제작하는 예술영화 ‘어머니의 소 원’ 촬영 시작

	5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JR의 통학정기권 값 할인을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여 지바현본부와 학교 어머니회가 투쟁을 시작
1988년	7월 10일	자녀교양을 더 잘하기 위한 ‘제1차 재일조선어머니중앙대회’ (1,300명이 참가)
1990년	7월 9일	‘제2차 재일조선어머니중앙대회’
1991년	7월 30일	니시도쿄 1세 어머니들의 모임 진행 (1세 75명이 참가)
	8월 4일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45돐, 중등교육 실시 45돐 기념 효고현 어머니대회’
1992년	6월 2일	‘만경봉-92호’ 니가타항에 첫 입항
	9월 2일	‘제3차 도카이/호쿠리쿠 지방 어머니대회’ (토호쿠/킨키: 3일, 칸토: 5일, 추시코쿠/규슈: 6일)
1993년	4월 28일	JR 정기권 차별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도쿄 어머니들의 켈기집회
1994년	4월 1일	JR정기권투쟁 승리
	6월 24일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의 방지를 요구하는 재일조선어머니중앙대회’ (36개 본부에서 8,800여명이 참가) ‘조선학교 어머니회 중앙연락회’ 발족
	8월 7일	UN인권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소위원회 제46차 회의에 조선학교 어머니회중앙연락회 회장이 참가
	10월 22일	‘제4차 재일조선어머니중앙대회’

1998년	8월 2일	‘어머니사랑운동’ 으로 지원물자를 가지고 여성동맹 대표단이 조국방문
	9월 28일	조국의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 에 재일조선 여성 33명이 참가
1999년	5월 29일	‘제5차 중앙어머니대회’
2002년	11월	‘제1차 어머니회 회장 모임’ (동일본: 1일, 서일본: 22일)
2003년	2월 5일	일본국립대학교 입학시험 자격 차별 시정을 요구하여 어머니회중앙연락회가 문과성에 요청
	3월 7일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는 어머니들의 긴급중앙모임’ 진행
	6월	‘제2차 어머니회 회장 모임’ (동일본: 21일, 서일본: 28일)
2004년	11월	‘제3차 어머니회장과 자녀사업담당자들의 모임’ (동일본: 17일, 서일본: 24일)
2005년	11월 22일	여성동맹 대표단이 조국의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 에 참가
	11~12월	‘제4차 어머니회장과 자녀사업담당자들의 모임’ (동일본: 11월 26일, 서일본: 11월 29일, 추시코쿠큐슈: 12월 4일)
2006년	7월 1일	‘제7차 중앙어머니대회’

	12월 1일	일본정부당국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반대하여 ‘12.1 어머니들의 긴급집회’ (국회 앞 앉아버티기와 가두시위)
2007년	2월 5일	시가조선초급학교에 대한 강제수색에 항의하는 어머니들 의 긴급행동 (오사카부경찰 앞에서 집회와 시위)
	11~12월	‘제5차 어머니회장 자녀사업담당자 모임’ (킨키: 11월 17일, 칸토토히쿠: 12월 1일, 토카이호쿠리 쿠: 12월 8일, 추시코쿠큐슈: 12월 9일)
2009년	7월	‘제6차 어머니회장 자녀사업담당자들의 모임’ (서일본: 5일, 동일본: 12일) ‘제8차 중앙어머니대회’ (동일본: 12일, 서일본: 18일)
2010년	2월 27일	‘고교 무상화’ 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조선고 급학교 교장회와 어머니회가 처음으로 제출
	3월 16일	‘조선학교 <무상화> 요구! 어머니들의 긴급집회’ 진행
	3월 30일	‘조선학교 <무상화> 요구! 오사카 어머니들의 긴급집 회’ 진행
	5월 27일	UN어린이권리조약위원회에 조선학교어머니대표단이 참가 하여 요청활동
	9월	‘제10차 어머니회장 자녀사업담당자모임’ (동일본: 6일, 서일본: 8일)
2011년	6~7월	‘제11차 어머니회장 자녀사업담당자들의 모임’

		(동일본: 6월 18일, 서일본: 6월 25일, 추시코쿠큐슈: 7월 2일)
2012년	9월 8일	‘제9차 중앙어머니대회’
	11월 18일	김정은 위원장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재일조선 여성대표단을 초빙
2013년	1월 31일	고교 무상화 적용과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쟁취하기 위한 ‘우리 꿈 우리 마음 프로젝트’를 군마여성동맹본부와 학교어머니회가 시작하여 확산
	2월 20일	‘고교무상화’에서 우리 학교만을 배제할 것을 정식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전국 조고교장회, 어머니회련락회, 학생련락회, 조선학원대표들이 문부과학성에 항의 요청
	4월 25일	조선학교전국어머니회련락회 주최 고교 무상화 제도의 즉시적용과 보조금 급부를 요구하는 국회의원회관원내집회와 기자회견 진행
	4월 28일	UN사회권규약심의위원회에 어머니대표단이 참가하여 활동
	6~7월	‘제9차 어머니회 회장 자녀사업담당자들의 모임’ (서일본: 6월 2일, 동일본: 6월 8일, 추시코쿠큐슈: 7월 6일)
2014년	9월	‘제10차 어머니회 회장 자녀사업담당자들의 모임’ (동일본: 6일, 서일본: 20일)
2015년	9월 12일	‘제10차 중앙어머니대회’

	9월 18일	조고 어머니회 회장을 비롯한 어머니회 대표가 문과성에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실현과 보조금지급재개를 요구하여 항의요청
2016년	4월 8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정지를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긴 급집회 진행
	6월	‘제11차 어머니회 회장 자녀사업담당자들의 모임’ (동일본: 11일, 서일본: 18일)
2017년	6월	‘제12차 어머니회 회장 자녀사업담당자들의 모임’ (동일본: 10일, 서일본: 17일)

論文抄録

朝鮮学校のオモニ会に関する研究

－ 総連系コミュニティの再生産とジェンダー役割 －

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

国際協力学専攻

川瀬 愛舞璃

本研究の目的は、朝鮮学校のオモニ会の活動と組織の分析を通してオモニ会が朝鮮学校に存在する理由を明らかにし、オモニ会が総連系在日朝鮮人のコミュニティにおいて果たす役割をジェンダーの観点から考察することである。

全ての朝鮮学校にオモニ会と教育会が設置されており、また近年ではアボジ会を持つ学校も増えてきた。保護者の組織が多様化しているのは朝鮮学校特有の構造であるが、オモニ会は他の保護者の組織に比べて、担う仕事の多様性が顕著である。オモニ会の活動は、(1) 国や自治体への要請活動、(2) 朝鮮学校運営のための資金集め、(3) 啓発活動、(4) 共同作業、(5) 学校行事の補佐、(6) 学校行事の主催の6つに分類される。また、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

てオモニ会が遂行する役割は4つある。第一に、オモニ会はオモニ会と密接な関係にある女性同盟の活動の幅を学校まで広げ、女性同盟による子女教育の方針を実践するための一つの「手段」として機能してきた。第二に、オモニ自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維持と再構築を行うことで、子どもたちの進路選択を方向付ける。第三に、オモニたちはオモニ会をネットワーキングの場として活用し、自らと類似した境遇にいる他のオモニたちと情報交換を行う。第四に、オモニ会は民族教育の維持という役割を担っている。

以上のような活動はオモニ会のみが担っているものであり、学校内の保護者の組織でも教育会とアボジ会、オモニ会との間には分業体制つまりジェンダー役割が存在する。この背景には、総連の今日までの一貫した家父長的な構造の中で、オモニたちに学校支援活動に尽力することが求められたことが挙げられる。とりわけオモニ会は賃金労働に従事する教職員の仕事を無償で支えることが多いという点で、「シャドウ・ワーク」(shadow work)を行っているのだ。ただし、オモニ会には朝鮮学校を代表する象徴的な役割や、各学校独自で行う自律的な活動の側面も見られる点にも留意する必要がある。

最後に、朝鮮学校のオモニ会の存在理由を総連系コミュニティという大きな枠組みで考える際、オモニ会の活動を見えない労働として規定するのは妥当ではなく、むしろオモニたちの仕事を可視化する必要がある。なぜなら、オモニ会は学校という範疇を超えて、総連系在日朝鮮人社会を支えるという機能を持っているからだ。朝鮮学校は在日朝鮮人社会がエスニックコミュニティとして維持され、再生産されるための最も重要な機関であり、オモニ会は学校運営のために極めて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だ。したがって、朝

鮮学校のオモニ会の仕事は共同体の存続に必要不可欠だという点において、
「コミュニティ・ワーク」としての意味を持っている。

キーワード：オモニ会、朝鮮学校、女性同盟、総連系コミュニティ、ジェン
ダー役割、コミュニティ・ワーク

学籍番号： 2016-29542